

## 공무원 헌장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우리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우리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조국의 평화 통일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이에 굳은 각오와 다짐으로 다음을 실천한다.

하나.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하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하나.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

행정을 구현한다.

하나.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

##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교육서비스 현장

우리 연수원은 교직원 연수를 담당하는 전문 교육 연수 기관으로서 연수생이 우리의 평생 고객임을 자각하고 최상의 교육 및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 사항을 실천하겠습니다.

- 우리는 현장중심의 내실 있는 교육과정 편성 및 우수 강사의 선정으로 연수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 우리는 다양하고 특성화된 연수과정 및 수준 높은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연수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 우리는 항상 밝은 얼굴로 친절하게 연수생을 대하며, 모든 업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우리는 연수생들을 위해 휴식과 복지 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하고 선진화된 연수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우리는 연수운영에 대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업무에 반영하고 미흡한 점이나 시행착오가 발견될 시 즉시 시정 보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 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목차

## 연수 안내

- 2021년 울산사랑 역사·인물 스케치 직무연수 <울산 애(愛) 한바퀴(문화와 예술 품은 울산 역사 기행)> 실시 계획

## 울산 애(愛) 한바퀴, 문화와 예술을 품은 울산역사기행

### 1기 '울산의 출발, 고래를 찾아'

• 현장 답사 지도	10
• 반구대 암각화	11
• 고래란 무엇인가	17
• 반구대 관련 유적들	24
• 천전리각석	29
• 장생포고래박물관과 장생포마을	39
• 한국사 속 포경역사	48

## 부록

• 연수대상자 명단	50
• 강사평가 설문조사표	52
• 이수증 출력방법	53
• 울산교육연수원 신청사 안내도	55
• [생활 속 거리두기] 연수 중 단계별 지침	58

01

# 연수 안내

---

2021년 울산사랑 역사·인물 스케치 직무연수  
<울산 애(愛) 한바퀴(문화와 예술 품은 울산 역사 기행)>  
실시 계획

# 울산애<sup>愛</sup>한바퀴

문화와 예술을 품은 울산역사기행

1회자 울산의 출발, 고래를 찾아

## 세부일정

**일자** 10월 23일(토)

**인원** 40명

- 출발 9:00 | 울산 교육청
- 09:40 - 10:15 | 울산 암각화박물관
- 10:35 - 11:05 | 반구대 바위그림
- 11:25 - 12:15 | 집청정 일원 | 점심
- 12:35 - 13:10 | 천전리각석
- 13:50 - 14:40 | 장생포고래박물관
- 14:40 - 15:40 | 웰니스 체험
- 도착 16:00 | 울산 교육청

## 강사

**1조** 이현호 강사님

**2조** 김문술 강사님

# 2021년 울산사랑 역사·인물 스케치 직무연수 실시 계획

## 울산 애(愛) 한바퀴 (문화와 예술을 품은 울산 역사 기행)

### I 목적

- 울산에 대한 역사·문화·예술 등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
-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구안·적용 역량 강화 지원
- 지역사회 의식 고취, 지역사회 및 문화예술 생태계 상생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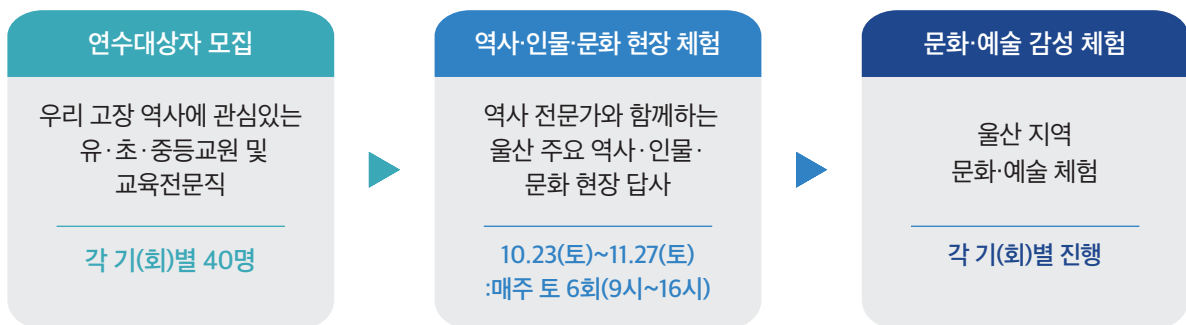
### II 방침

- 운영방법 | 역사 및 문화·예술 연수 경험이 풍부한 운영 기관(업체)을 통한 위탁운영으로 연수의 목적에 부합되는 프로그램 운영
- 과정구성 | 울산 권역별·주제별에 따른 현장답사 체험연수 6회(매주 토요일 실시, 각 기<회>당 6시간)로 구성
- 운영관리 | 집합 연수 운영 및 관리는 위탁업체에서 주관, 업무 담당자는 비정기적 모니터링 및 현장실사로 질 관리
- 연수진행 | 각 기별 차량 2대(1대에 20명 전후로 인원 배치)로 나누어 진행되며, 코로나19 방역 관련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하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연수 방법과 장소 변경 가능
- 연수시간 인정 | 1일 연수 참여자는 6시간의 직무연수 시간 인정

### III 방침

- 연수기간 | 2021. 10.23.(토) ~ 11.27.(토) <매주 토요일 9시~16시, 6회 실시>
- 연수대상 | 유·초·중등 전 교원 및 교육전문직 240명<각 기(회)별 40명>
- 연수 방법 | 집합 연수
- 연수 장소 | 각 기(회)별 연수 일정표에 따라 상이함
- 연수 시간 | 각 기(회)당 6시간 (총 6~36시간)

### IV 과정설계



#### IV 세부 계획

(울산 愛(애) 한바퀴) 역사 전문가와 함께 떠나는 울산 지역 현장답사 체험

##### • 연수 개요

기간	대상	주요내용	비고
10.23.(토) ~11.27.(토) (매주 토요일 9시~16시, 6기 운영)	유·초·중등 전 교원 및 교육전문직 240명 ※ 각 기수별 40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역사전문가와 함께하는 울산 권역별·주제별 일정에 따른 역사·문화 기행</li> <li>지역 역사·문화 자원 이해 및 지역 문화·예술인과의 만남</li> <li>지역사회와 연계한 '마을교육공동체' 실천 역량 강화</li> </ul>	위탁 운영

##### • 세부 일정 및 내용

기간	대상	주요내용	비고
1기	10월 23일	울산의 출발, 고래를 찾아	웰니스 체험
	울산암각화박물관-반구대바위그림-집청정-천전리각석-장생포고래박물관		
2기	10월 30일	임진왜란 최대 격전지, 성곽도시 울산	문화예술공연
	병영성-울산왜성(학성공원)-충의사-서생포왜성		
3기	11월 06일	두 마을 이야기, 방어진과 일산	웰니스 체험
	방어진역사관-방어진일대-슬도-출렁다리-대왕암-울기등대-보성학교전시관-서진문묘소		
4기	11월 13일	울산의 중심, 원도심을 걷다	문화예술공연
	울산동헌 일대-성남동 일대-서덕출공원-구 역전시장(여인숙골목)		
5기	11월 20일	한국사 속의 울산사람	웰니스 체험
	박상진 생가-외솔기념관, 최현배 생가 -이예(석계서원, 근재공고택)-손응교(입암마을, 선바위)-오영수문학관		
6기	11월 27일	울산은 왜 공업도시가 되었나?	문화예술공연
	울산박물관-장생포문화창고-장생포고래박물관-울산대학교전망대-소금포역사관-울산노동역사관		

### •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 연수대상자는 직접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홈페이지 (<https://edu.ueti.or.kr>)에서 신청하고 선발은 신청 순서에 의함. 단, 1인 1기(회)만 신청 원칙(복수 신청자는 신청과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교육 신청 인원이 교육정원을 미달하는 경우 2차로 추가모집 실시(선착순 모집이며, 복수신청도 가능)

### • 이수 조건 안내

- 대상자 선정 후, 연수 중도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수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하기 바람

#### 【 이수 조건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운영 규정 제13조(연수의 이수기준)

- 총 연수시간의 10분의 9이상을 이수한 자
- 다만,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중 ①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사망으로 결석한 경우, ②불가피한 출장(증빙서류 제출 시), ③코로나19 관련 결석인 경우(증빙서류 제출 시)에 한하여 10분의 8 이상을 이수한 자도 이수처리 한다.

### • 연수생 협조 및 준수사항

- 긍정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연수에 참가하여 알찬 연수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VIII 기대효과

- 교원들의 울산 지역 탐방을 통한 지역사랑의식 고취 및 내 고장 바로 알기 전문성 함양
- 지역사회 역사·문화·인물·예술 자원이 연계된 교육과정 구성 및 교육프로그램 구안·적용 역량 강화
- 연수 참여 교원 중심의 현장 적용사례 나눔 활동과 지속적 연찬 활동 활성화를 통한 교육력 제고
- 지역 문화·예술 체험을 통한 감성 및 심미안적 역량을 높이고, 울산 예술·문화인 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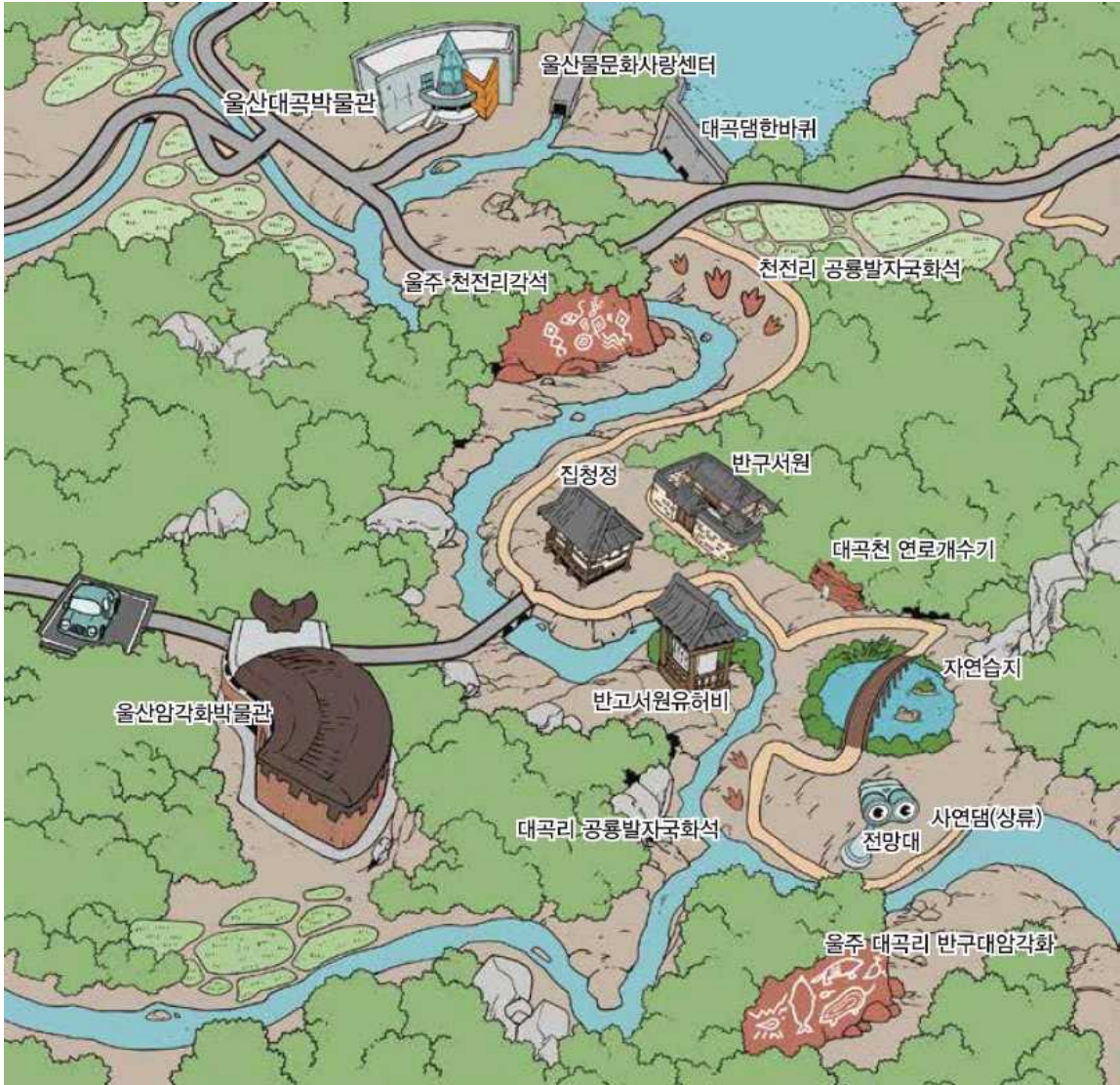
02

## 울산 애(愛) 한바퀴, 문화와 예술을 품은 울산역사기행

1기 '울산의 출발, 고래를 찾아'

- 
- 현장 답사 지도
  - 반구대 암각화
  - 고래란 무엇인가
  - 반구대 관련 유적들
    - 천전리각석
  - 장생포고래박물관과 장생포마을
  - 한국사 속 포경역사

○ 현장 답사 지도



## 반구대 암각화



울산지역에는 많은 선사 유적이 있다. 신석기 시대 유적은 주로 해안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고, 청동기 시대 유적은 울산 전 지역에서 발굴되고 있어 청동기 유적의 보고라 할 만하다. 청동기 시대 유적만 놓고 보면 2007년 까지 발굴된 주거 유적이 80곳 이상, 조사된 집자리가 1,200동 이상이다.

이와 같은 발굴 성과로 볼 때 청동기 시대 울산에는 많은 정치 집단이 존재했고, 이들이 성장, 결합하여 삼한 시기 울산 지역 소국들로 발전했음이 밝혀지고 있다. 이 중에서 배가 그려진 반구대 암각화는 울산 지역의 해양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가장 오래된 유적이다. 대략 고래 목 동물 그림 58점과 어류 그림 2점 그리고 배 그림 5점이 그려진 반구대 암각화는 신석기 시대부터 울산지역 사람들이 배를 다루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 주목된다.

### 1. 위치

반구대 암각화는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를 가로질러 흐르는 대곡천 중류의 암벽에 새겨져 있다. 국보 285호인 반구대 암각화 앞을 흐르는 냇가를 따라 2km 정도 상류를 거슬러 올라가면 국보 147호인 천전리 각석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울산의 귀중한 국보인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각석을 함께 품고 있는 대곡천은 태화강으로 흘러 들어간다. 울산 지역에 살았던 선사시대 사람들은 태화강을 비롯한 여러 하천들 가운데서도 유독 대곡천에만 암각화를 남기고 있다.

대곡천에는 두 곳의 선사시대 암각화 외에도 도자기 가마터, 철을 녹이던 쇠부리터, 정자와 절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다. 문화재 창고와도 같았던 이곳에 사연담과 대곡담이 건설되면서 그 많던 보물들은 모두 물속에 잠겨버리고 지금은 한낱 전설로만 남고 말았다.

## 2. 발견과 문화재 지정

1965년 사연담이 만들어지면서 물속에 잠기게 된 반구대 암각화는 유난히 가뭄이 심했던 1971년 12월 25일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때 이 지역에 대한 조사 활동을 나눴던 문명대, 김정배, 이용조가 천전리 각석을 답사하는 과정에서 주민 제보로 알려졌다. 이후 우리나라 암각화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되었으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995년 국보 285호로 지정된 이후에도 큰 가뭄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연중 물속에 잠겨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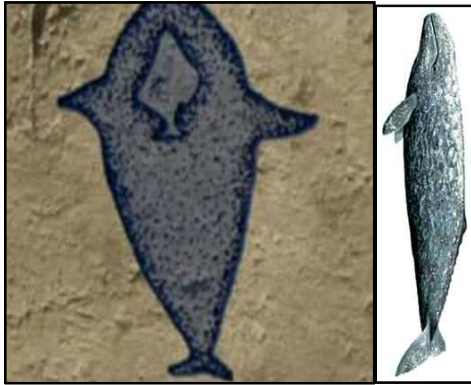


## 3. 암각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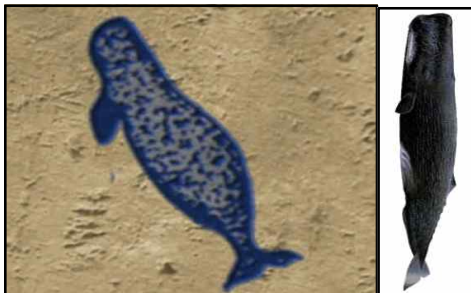
암각화가 있는 계곡의 절벽은 평균 높이가 70m나 되어 마치 돌병풍을 이어 놓은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림이 새겨진 바위 면은 모두 12개에 이르지만 높이가 5m, 너비 8m 크기의 수직 암면에 집중되어 있다. 이 바위를 중심으로 좌우 약 20m에 걸쳐 모두 307점의 그림들이 수를 놓은 듯 새겨져 있다. 가장 중요한 그림들이 집중된 바위 면을 제외한 나머지 11개의 바위 면에는 그림이 띄엄띄엄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성도 떨어진다. 따라서 우리가 반구대 암각화라 하면 중앙 바위면

그림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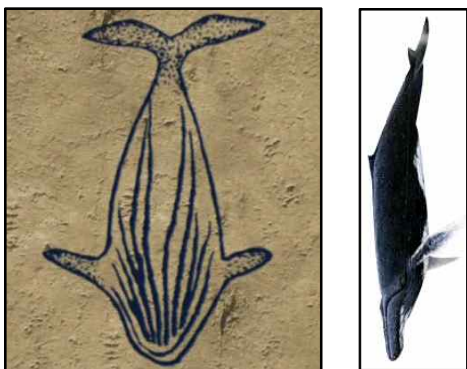
바위 왼쪽 가장자리에는 거북이 세 마리가 자리 잡고 있다. 거북이 그림 오른쪽으로 멀리 망을 보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사람은 집단의 우두머리 혹은 주술사로 보고 있다. 이 그림 밑으로 여러 마리의 고래들과 함께 그물과 울타리들도 보인다. 가운데 부분에는 멧돼지, 사슴, 호랑이, 표범 등이 조각되어 있으며, 오른쪽 아랫부분에 있는 역삼각형의 사람 얼굴이 이채롭다.



귀신고래



향유고래



흑등고래

반구대 암각화의 2/3를 넘는 동물 그림은 크게 바다 짐승과 육지 짐승으로 나눌 수 있다. 64마리에 이르는 바다짐승 가운데는 고래가 57마리에 이르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곳에 있는 고래 그림은 언제부터가 울산의 상징이 되어 각종 로고, 벽화 등 여러 곳에 사용되고 있어 울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친밀감을 느끼고 있다. 반구대 암각화의 백미라 할 수 있는 고래 그림 가운데 하나는 어미 고래가 새끼를 업고 있는 그림이다. 새끼 고래는 30초 이상 호흡을 멈추고 물속에서 지내기 힘들기 때문에 어미 고래가 머리 위에 업고 다닌다고 한다. 이 고래는 귀신고래 혹은 쇠고래라 하며 한자로는 극경(克鯨)으로 표기한다.

귀신고래는 암초와 해초 사이를 헤집고 다니다가 갑자기 물 위로 솟구쳐 오르는 등 그 행동이 마치 귀신같이 민첩하여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귀신고래들이 새끼를 낳기 위해 이동하는 경로를 ‘극경회유해면’이라 하는데 울산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귀신고래 밑에 있는 여러 고래들 가운데는 사각형의 머리와 가늘고 긴 아래턱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향유고래도 섞여 있다. 한꺼번에 오징어 3만 마리를 먹어 치우는 대식가이기도 한 이 고래는 머리에 많은 기름이 있다고 하여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1시간 동

안 6~7번 물 위로 올라오는 흑등고래는 주름이 많은 모습으로 새겨져 있다. 이외 아래턱이 큰 유선형으로 수증기를 내뿜는 북방 긴수염고래, 몸체에 여러 개의 긴 선을 그어놓은 흰 긴 수염고래, 몸체의 반만 쪼아 새겨 가운데 배가 하얗게 드러난 범고래, 가운데 부분에 굽은 등지느러미를 새긴 참돌고래 등 많은 그림들이 사실적으로 잘 묘사되어 있다.

한편 바위 그림 왼쪽에 있는 울타리 그림 밑에는 배와 고래를 연결해주는 부구가 있다. 부구는 작살에 맞은 고래가 요동치는 충격이 배에 전달되는 것을 완화시켜 주는 기구다. 이렇게 여러 종류의 고래들과 부구, 작살, 그물 등 고래잡이와 관련된 그림들은 반구대 암각화의 압권이라 할 수 있다.

이들 그림 가운데는 오랜 시간으로 말미암아 희미해진 것도 많이 있다. 바위면 곳곳에 균열이 있으나 물에 크게 깎여 나간 부분 없이 반반한 편이어서 새겨진 그림을 그대로 볼 수 있다. 그림이 가장 많이 있는 중앙 바위 면은 해질 무렵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햇볕이 들지 않는 곳이다. 암각화를 제대로 보려면 맑은 날 오후 4시쯤 가는 것이 가장 좋다. 물론 이것도 물이 완전히 빠졌을 때의 이야기다. 그러나 이때 가더라도 암각화를 식별하기가 쉽지 않다.

#### 4. 제작 시기와 의미

반구대 암각화가 새겨진 시기에 대해서는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초기 철기 시대까지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 여러 논란을 거듭해온 가운데 신석기 시대 말에서 청동기 시대 초로 보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최근 과학적 분석 결과 약 7,000년 전 신석기 시대 이른 시기까지로 입증되었다. 이 암각화는 몇 시기에 걸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집단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최소 다섯 차례에 걸쳐 그림이 작성됐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재 연구자의 결과물마다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반구대 암각화는 표현 대상의 내부를 모두 쪼아낸 면 쪼기에 의한 평면그림과 윤곽만으로 쪼아낸 선 쪼기에 의한 선 그림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고래 등 바다 짐승은 주로 면 쪼기로, 물짐승은 주로 선 쪼기로 표현되어 있다. 이 가운데 면 쪼기가 선 쪼기보다 먼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307점에 이르는 암각화 가운데 동물상이 65%를 넘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어 사람의 모습이 약 5%, 배, 그물 등 도구를 표현한 것이 약 4%,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는 것이 약 26%로 각각 나타났다.

암각화는 대개의 경우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반구대 암각화가 있는 곳은 매우 신성한 장소였다. 당시 사람들은 그림이 새겨진 곳에서 하

늘에 제사를 올리기도 하고, 수호신을 위한 굿을 하기도 했다. 또한 사냥과 고기잡이의 성공과 풍성한 수확을 비는 의례 장소 혹은 사냥 방법과 분배 원칙을 가르치는 교육 장소로도 이용되었다.

## 5. 보존 문제

세계문화유산으로 거론될 정도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반구대 암각화가 최근 들어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채 아래쪽 1/5 정도가 하얗게 변해버렸다. 이 때문에 암벽에 새겨진 고래와 야생 동물 문양 가운데 일부는 알아보기 쉽지 않게 되었다. 물에 잠겼다 노출되기를 반복해 온 아랫부분의 이러한 모습을 두고 전형적인 백화 현상이라 보는 주장도 있지만 침수 때문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암각화가 처음 발견되었던 50년 전과 비교해보면 조각된 부분이 얇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림이 새겨진 바위의 일부 표면조차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고 있다. 앞으로 암각화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침수 기간을 최소화하거나, 침수 자체를 막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연담의 담수량을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암각화 앞을 흐르는 물길을 돌리는 방안을 강구하는 결단이 시급하다.

## 6. 울산암각화박물관

국내에 유일한 암각화 박물관으로서 국보 285호와 147호로 지정된 '울산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각석'을 소개하고 국내 암각화 연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2007년 1월 착공하여 2008년 5월 30일 개관하였다. 부지면적 8,960㎡에 고래를 형상화한 목조건축물로 건물연면적 2,025㎡의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박물관 주요전시물은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각석의 실물모형, 암각화 유적을 소개하는 입체적인 영상시설,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각종 모형물과 사진 등이 전시되어 있다.

1층 전시실에는 선사탑, 암각화의 이해, 선사시대 생활디오라마, 반구대 암각화 복제모형, 천전리 각석 복제 모형이 있으며 그 외 수장고·세미나실·사무실 등이 있다. 2층 전시실에는 대곡천 암석 표본, 반구대 암각화 속의 동물, 울산만 지형변화, 태화강 생태부지토층 전사, 황성동 패총 출토유물 등이 있다.

울산암각화박물관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흔적을 품은 독특하고도 아름다운 명승 계곡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박물관 주변에는 선사 시대의 암각화뿐만 아니

라 신라 시대의 명문과 세선화, 정몽주 선생이 유배의 회한을 달래고 겸재 정선이 화폭에 담았던 반구대, 선비들의 삶이 녹아 있는 정자와 서원, 지질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공룡발자국 화석과 천혜의 환경 속에 서식하는 수많은 야생 동식물이 있다.



# 고래란 무엇인가?

## 1. 고래의 생태

### 1) 고래의 정의

고래란 수중생활에 가장 잘 적응된 포유동물로, 포유강 고래목의 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얼핏 보아 물고기처럼 보이고 특히 상어류와 모습이 비슷하여 오랫동안 ‘물을 내뿜는 물고기’로 인식되기도 했다.

고래를 최초로 포유류로 정의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B.C.384~B.C.322)였으나, 플리니우스(23~79)에 의해 오랫동안 물고기로 분류되었다. 그러다가 18세기 이후 린네(1707~1778)와 퀴비에(1769~1832) 등에 의해 포유류로 재분류되었다. 이 시기 고래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 고래의 뼈를 화석 상태에 있는 육지 포유동물의 뼈와 비교하였고, 고래가 포유류 가운데서도 아주 오래된 과(科)에 속하고 육지 포유동물과 조상이 같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고래가 포유류인 까닭을 생물학적 특징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고래는 피가 따뜻한 온혈동물이며, 수면 위로 올라와 폐로 공기 호흡을 하고, 새끼를 낳아 젖을 먹인다. 앞다리는 지느러미로 진화하였는데 고래의 가슴지느러미 뼈에는 육상 포유류의 손가락뼈를 그대로 갖추고 있다. 뒷다리는 퇴화되어 척추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허리의 근육 속에 작은 뼈만 흔적으로 남아있으며, 꼬리지느러미는 수평 방향으로 아래위로 움직인다.

그 외 고래의 일반적인 특징은 몸은 유선형이며, 몸에 털이 거의 없고 두꺼운 피하지방이 체온을 보호한다. 후각은 거의 없거나 아예 없어졌고, 물속에서 물체를 잘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청각이 발달하였다. 또한 물속에서 오랫동안 잠수할 수 있게 이산화탄소에 대한 내성이 육상 포유류보다 두세 배 이상 발달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약 100종이 알려져 있는데, 한국 근해에는 3과 8종이 알려져 있다. 고래는 먹이가 풍부한 바다에 집중 분포하고 있으며, 종마다 좋아하는 먹이가 다르기 때문에 먹이의 분포에 따라 고래류의 분포도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바다는 남으로는 난류가 북상하고 북으로는 한류가 남하하여 혼합하는 생산성이 높은 바다이며, 또한 동해에는 심해가 있어 거의 모든 수온대와 수심대의 고래류가 다양하게 분포한다.

### 2) 고래의 종류

고래는 분류학적으로 이빨이나 수염의 유무, 머리뼈의 특징으로 크게 수염고래 아목(亞目)과 이빨고래 아목으로 분류한다. 수염고래 아목은 4과 6속 13종, 이빨고

래 아목은 10과 33속 약 70여 종이 있다. 통상적으로는 고래목을 통틀어 몸길이 4~5m 이상인 것을 고래류, 이하인 것을 돌고래류라고 한다.

① 수염고래 아목

수염고래류의 특징은 이빨 대신 위턱에 인체의 손톱과 머리카락을 이루는 주성분인 케라틴으로 만들어진 고래수염이 나 있다. 고래수염은 바닷물과 함께 먹이를 입속으로 삼킨 뒤 물은 수염 사이로 뱉어내고 작은 물고기 떼나 소형 해양생물을 걸러내는 기능을 한다. 몸길이 33m, 체중 160톤인 대왕고래를 비롯하여 대체로 대형 고래들이 여기에 속하며, 한 쌍의 분기공, 좌우대칭의 머리뼈, 한 개의 통뼈로 구성된 가슴이 특징이다.

수염고래류의 종류에는 대왕고래, 참고래, 보리고래, 브라이드고래, 밍크고래, 혹등고래, 북방긴수염고래, 귀신고래 등이 있다.



② 이빨고래 아목

이빨고래류의 특징은 상아질로 덮여 있는 이빨이 위턱과 아래턱 혹은 한 쪽의 턱에 나 있으며, 그 모양과 수는 종류에 따라 다양하다. 이빨고래류의 이빨은 먹이를 씹는 기능이 아닌 잡는 역할을 한다. 분기공은 하나이며, 옆면이 비대칭인 머리뼈, 셋 또는 그 이상으로 나누어진 가슴뼈, 이마에 멜론이라고 하는 음향탐색기관을 가지고 있어 큰물고기나 오징어 같은 개체를 탐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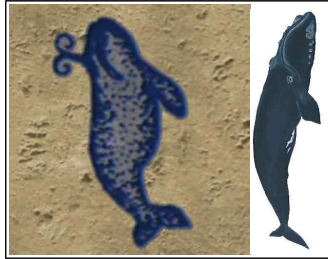
이빨고래류의 종류에는 향고래, 꼬마향고래, 흰고래, 큰부리고래, 민부리고래, 은행이빨고리고래, 큰이빨부리고래, 범고래, 흑범고래, 들쇠고래, 큰머리돌고래, 짧은부리참고래, 큰돌고래, 까치돌고래, 쇠돌고래, 상괭이 등이 있다.



## 2. 반구대 암각화의 고래

### 1) 반구대 고래의 종류별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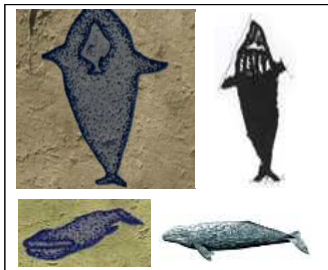
#### ① 긴수염고래



< 긴수염고래 >

긴수염고래는 몸길이는 최대 17~18m이며, 암컷이 수컷보다 크다. 체중은 80~100톤이다. 임신기간은 10~12개월이다. 북태평양에서는 동해, 동중국해, 오호츠크해, 베링해 등에 걸쳐 분포한다. 요각류, 기타 소형 갑각류(주로 칼라누스)를 먹는다. 머리 부분이 몸 전체의 1/4을 차지하고 유난히 입이 커서 쉽게 먹이를 모을 수 있다. 허리둘레는 몸길이의 약 60% 이상에 달한다. 가장 큰 특징은 고래 종류 중 유일하게 V자형 물줄기를 분기한다. 대부분 물 표면에서 머물고 있고, 성질이 온순하며, 몸 전체가 지방으로 차 있어 죽어도 가라앉지 않아 쉽게 내륙으로 운송하기 쉬워 일찍부터 포경의 대상이 되었다.

#### ② 귀신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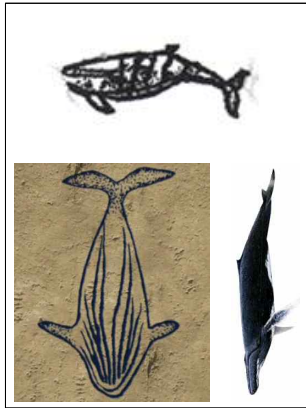


< 귀신고래 >

쇠고래라고 한다. 전체가 회색이며 복부는 약간 옅은 회색이다. 거의 모든 개체가 흰색의 상처 모양이 있으며 굴껍데기, 조개삿갓, 따개비 등이 부착해 있다. 다른 수염고래류의 특징인 주름이 없고 길이 1~2m인 2~5개의 깊은 홈이 있다. 반구대 암각화에서 목 아랫부분을 부각시킨 독특한 특징을 가진 고래 그림은 그 고래가 귀신고래임을 암시한다. 최대 몸길이 약 16m, 체중 45톤, 임신기간은 13.5개월, 최대수명은 70세이다. 서북태평양과 동부태평양 계군이 있다. 11월 하순부터 2월 상순 사이에 우리나라 동해에서 새끼를 낳고 봄에 울산을 지나 북상 회유한다. 수면에 몸체를 비상하기, 수직으로 세우기 등에 능하다. 바다 밑 빨에 서식하는 대합과 게 등을 먹고 사는 유일한 고래로, 입에 진흙을 가득 문힌 귀신고래를 목격하기도 한다.

#### ③ 흑등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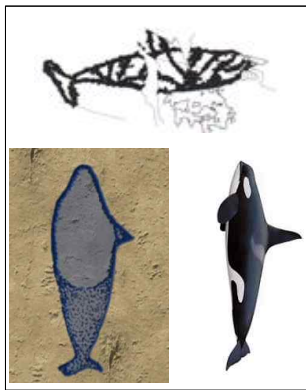
등지느러미가 흑 위에 있다 하여 흑등고래다. 몸체는 통통하고 가슴지느러미가 몸길이의 1/3에 이를 정도로 매우 길다. 아래턱에서 배꼽 혹은 가슴부위, 그리고 항문 부위까지 길게 15cm 폭의 넓은 주름이 14~35개가 있다. 몸길이는 11~16m이며, 체중은 30~40톤 정도에 이른다. 임신기간은 11~12개월이며, 수명은 최대 60년



< 흑등고래 >

정도이다. 북태평양 전역에 분포하고 연안, 특히 인적이 많은 곳에서 번식과 먹이를 찾아 사람에게 가장 익숙해져 있다. 대형고래 중 가장 곡예에 뛰어나고 몸 전체를 수면 위로 비상하기도 한다. 거품 그물치기로 먹이감을 잡기도 한다. 반구대 암각화에 등장하는 이 고래 그림에 대해 기존의 연구자들은 뒤집혀진 고래이거나 혹은 죽은 고래로 파악하거나 반대로 배를 거꾸로 하여 도약하는 모습으로 보기도 한다.

#### ④ 범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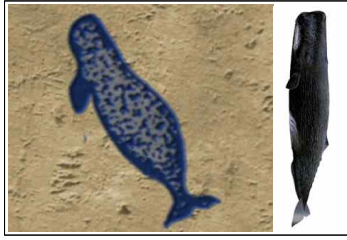
< 범고래 >

광택 있는 흑백의 채색과 높고 넓은 그리고 직립한 등지느러미와 높은 체고가 다른 고래와 구별되는 특징이다. 암컷의 등지느러미 모양은 낮 모양이고, 수컷은 높고 큰 삼각형이 특징이어서 여기에 그려진 고래는 수컷으로 보여진다. 부리는 매우 짧고 불명료하고 주둥이는 원추형이며 둥근 이마와 부리사이의 경사가 크다. 꼬리지느러미 중앙에 V자의 벤 자리가 뚜렷하고 양끝은 뒤쪽으로 살짝 뾰족하다. 배 부위는 흰색이 뒤로 길게 무늬지어 있고 등지느러미 뒤 후단의 배면 양측으로 가지모양으로 뻗어 있다. 눈보다 위쪽 뒷부분에 긴 타원형의 흰 반점과 등지느

러미 뒤에는 말안장 모양의 밝은 회색 띠가 둘러져 있다. 호기심이 강하고 접근하기 쉬우며 같은 무리 내에서 서로 공격하는 일은 아주 드물다. 두 그룹 이상 무리를 짓는 경우 심지어 150마리 이상 되는 대그룹도 있다. 암컷은 최대 8.5m, 7.5톤, 수컷은 9.8m, 10톤에 이른다. 임신기간은 약 16~17개월이며 수명은 약 50년 정도이나 최대 100년 정도 생존한다. 오징어류 및 어류를 주식으로 하며 물개류 뿐만 아니라 대왕고래 등 대형 고래류를 집단으로 공격하여 포식하기도 한다.

#### ⑤ 향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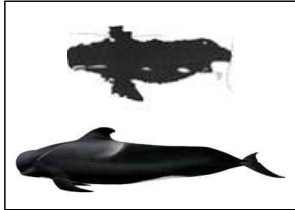
이빨고래류 중 가장 크다. 머리가 사각형이며 몸길이의 1/3에 달한다. 몸길이 최대 18m, 몸무게 최대 57톤에 이른다. 임신기간은 15~16개월, 수명은 65~77세이다. 북위 60도에서 남위 70도의 전 대양에 분포하며 동해, 오호츠크해 등에는 드물고 동해남부와 동중국해에 주로 분포한다. 약 2시간 동안 최대 32,000m까지 잠수하여 고래 중에서 가장 깊이 잠수하고 가장 오래 호흡 없이 물속에 머물 수 있다. 오징



< 향고래 >

어류와 저서어류를 먹이로 하며 10m가 넘는 대형 오징어를 포식한다. 깊은 바다에 살기 때문에 연안에서 흔히 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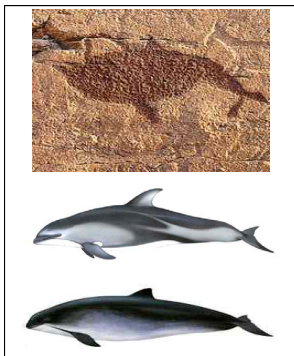
⑥ 들쇠고래



< 들쇠고래 >

길잡이 고래라고도 한다. 머리의 형태는 직사각형에 가까운 둥근형이고 크다. 등지느러미는 몸 축의 앞쪽 1/3 지점에 위치한다. 몸길이 최대 6.1m, 체중 3.6톤이다. 임신기간은 약 15개월이며 수명은 46~63세 정도이다. 북반구와 남반구의 북위 50도와 남위 40도 사이의 온대와 열대의 심해에 분포한다. 보통 15~40마리, 최대 수백 두가 무리를 이루기도 한다. 무리 전체가 동시에 좌초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⑦ 돌고래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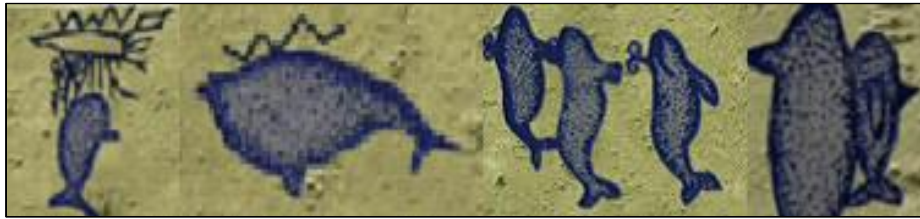


< 돌고래류 >

암각화에 등장하는 돌고래는 몸은 뒤로 뒤집혀 있으나 꼬리 부분이 쳐들린 채 힘이 들어가 있는 동작으로 인해 생동감이 느껴진다. 살찐 몸체에 비해 중앙의 등지느러미, 가슴지느러미, 꼬리지느러미가 매우 작게 그려져 있다. 돌고래는 물돼지라고도 하며, 참돌고래과·쥐돌고래과·강돌고래과·일각과·쇠말향고래과가 포함된다. 앞머리가 납작하고 주둥이가 눈에 잘 띄는 것을 돌핀(Dolphin), 앞머리가 둥글고 주둥이가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을 포르포이스(Porpoise)라고 한다.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반드시 무리를 이루어 이동하며, 주로 오징어와 물고기를 즐겨 먹는다. 수명은 대략 50~60년이다.

## 2) 그 외 반구대 암각화의 고래그림

### ① 반구대 암각화 고래의 생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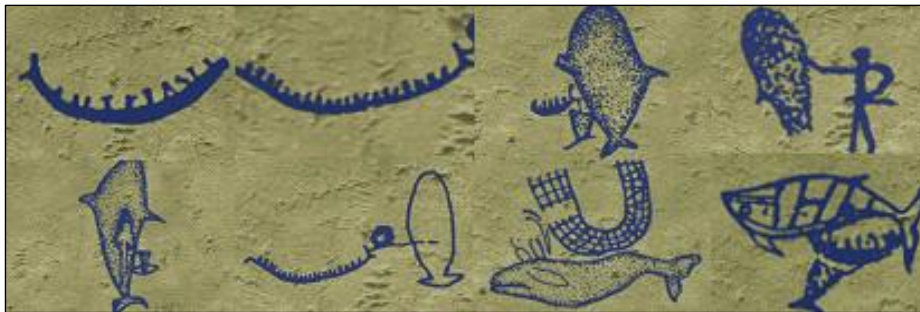


< 해초에서 노는 고래 · 파도 타는 고래 · 분기하는 고래 · 새끼를 등에 업은 고래 >

반구대의 고래그림을 살펴보면 고래의 종류뿐만 아니라 고래의 습성까지 잘 표현하고 있다. 해초 사이에서 노는 고래, 파도타는 고래, 분기하는 고래, 새끼를 등에 업은 고래 등이 있다.

고구려인들은 고래의 출생과 식생을 관찰하고 미역을 산후조리에 응용하였다고 한다. 조선시대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도 우리나라 산모들이 산후 미역국을 먹는 유래가 나와 있다. 고래의 파도타기는 다른 곡예에 비해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돌고래류가 가장 즐기는 놀이다. 일반적으로 물을 뿜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고래의 분기는 숨을 내뿜을 때 체내에 있던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대기로 갑자기 팽창되면서 수증기가 발한한 것이다. 고래는 모성애가 강한 동물이다. 어미 배에서 갓 나온 새끼고래는 첫 번째 호흡을 위해 수면 위로 떠오른다. 그때 어미가 자신의 등으로 새끼가 수면으로 떠오를 수 있도록 밀어준다. 또한 새끼를 등에 업고 훈련시키기도 한다.

### ② 반구대 암각화의 고래잡이



< 10인승 배 · 20인승 배 · 고래에 접근하는 배 · 작살 쫓는 포수 · 작살 맞은 고래 · 고래를 끌고 가는 배 · 고래잡이 그물 · 고래 분배 >

반구대 암각화의 그림 중 당시 어로상황이나 포경의 방법을 짐작할 수 있는 그림들이 등장한다. 조그만 배에 수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는 그림, 창을 던져 고래를 잡는 모습(투창식 포경), 그물을 던져 고래를 잡는 모습(투망식 포경)이 그려져 있다.

반구대 암각화에 나오는 배의 모습은 지금의 포경선과 달리 앞과 뒤쪽이 크게 들여 있는 것으로 봐서 잡은 고래를 직접 배에 끌어 올린 것이 아니라 튼튼한 밧줄로

두서너 대가 묶어 이동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래의 급작스런 행동에 민첩하게 대비하기 위해 배가 쉽게 회전하도록 한 것을 알 수 있다. 주로 큰 배는 고래를 잡기 위해 움직이지만 작은 배는 잡은 고기를 묶어 운반하고 있다. 이때 작살에 맞은 고래가 요동치는 충격이 배에 전달되는 것을 완화시켜 주는 ‘부구’라는 기구를 사용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도 있다.

암각화의 그림 중 날카로운 창에 찢린 고래 모습을 보면, 고래의 뒤쪽에서 접근하여 심장이 있는 왼쪽 가슴지느러미 뒤에 창이 꽂혀 있다. 이는 고래 사냥을 할 때 창을 이용했다는 것과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보여주고 있다.

투창식 포경은 구라파에서는 바스크족이 9세기경에 사용했으며, 일본에서는 12세기 가마쿠라시대에 사용하였다. 투망식 포경은 일본의 에도시대에 사용했던 방법이었는데, 기원전 수십 세기 전에 반구대 암각화에는 이미 투창식과 투망식 고래잡이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에스키모인들은 반구대 암각화와 같은 모습의 원주민 포경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고래를 분배하는 그림도 등장하는데, 오늘날의 고래 분배 모습과 동일하다. 이를 보건대, 당시 고래잡이 기술이 최고였음을 시사한다.

## <읽기 자료>

고래는 세계적으로 100여종이 있는데 지느러미나 입의 생김새, 배주름, 수염, 이빨의 유무, 물 뿜는 방식 등에 따라 종류를 판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조사된 바로는 약 10여 종 정도가 동해안으로 회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반구대 암각화에서 이들을 거의 다 확인할 수 있다. 장생포 일대에서 고래잡이를 오래 해온 이들은 그림을 보면 고래의 종류나 생태를 훤히 꿰 수 있을 정도라 한다.

암각화의 바다동물은 모두 68점으로, 그 중 43점이 고래다. 절반 이상이 고래인 셈인데 그 모양이 조금씩 다르다. 고래는 종류별로 물을 뿜는 모습이 다르다. 분수처럼 뿜어 올리는가 하면 곧바로 위로 뿜기도 한다. 그중 V자형으로 물을 뿜는 것이 긴수염고래다. 그런가 하면 몸체에 여러 개의 긴 선을 그어 놓은 고래가 있다. 이 고래는 흰긴수염고래다. 바위를 반만 쪼아 판 것은 범고래인데 이처럼 새김 방법을 달리해 고래 종류를 표현한 것이다. 입모양이 유난히 강조된 것은 귀신고래고, 입이 뭉툭한 것은 향유고래의 특징이다. 고래의 특징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런 그림들은 그릴 수 없는 것이다.

-역사스페셜1-

고래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없던 시절에도 고래 사냥꾼은 사냥할 고래와 피해야 할 고래의 종류, 작살을 꽂는 방식, 1년 중 가장 좋은 사냥철, 그리고 가장 좋은 어장 등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고래의 가족관계까지도 잘 알고 있어서 항상 새끼 고래에서 어미 고래, 마지막에는 아비고래의 순으로 작살을 던졌다. 그러면 아무 고래도 달아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고래의 고유한 생활규칙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예를 들어 둥근 머리 모양의 길잡이 고래 떼를 공격할 때는 그 가운데서 두세 마리만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상처 난 친구를 지켜주려는 무리 전체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 영국 사람이 ‘살인 고래’라고 불렀던 범고래는 한 마리가 작살을 맞으면 남은 고래 모두가 무리 지어 공격하기 때문에 고래 사냥꾼은 이들을 피해왔다. 이와 같은 고래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의 축적은 고래 사냥의 역사만큼이나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 고래 사냥꾼의 관찰력은 꽤 정확했기 때문에 그들이 제공한 정보는 ‘고래학’의 기초가 되었다.

## 반구대 관련 유적들

### 1. 반구대의 유래



반구대는 마치 거북이가 엎드려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거북 등에 해당하는 265m의 반구산 꼭대기로부터 북동쪽으로 뺀 능선을 따라 내려오다 갑자기 우뚝 솟은 기암 절벽이 나타나며, 이를 지나면 다시 완만하게 뺀 내린 산 줄기가 대곡천으로 흘러 들어간다. 대곡천 물줄기가 크게 휘감아 돌면서 조그만 반도를 형성한 반구대는 대곡천에서 가장 경치가 뛰어난 곳이다.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거북이 목과 머리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곳을 포은대라고도 한다. '포은대'라는 이름은 고려 말 충신이었던 포은 정몽주가 유배 생활을 했던 곳이라서 붙여진 이름이다. 40세 때 친원배명 정책에 반대하다가 언양의 요도로 유배된 정몽주는 16개월 동안 귀양살이를 하면서 작천정과 반구대를 자주 찾아 시름을 달랬다고 한다. 정몽주가 반구대를 찾았다가 남긴 시 한 수가 전해오고 있다.

객심이 오늘따라 처량하다

물에 가도 산에 올라가도 축축하고 더운 독기 서리운 해변이로다

흥중에 글이 있어 도로 나랏일을 그르쳤건만

양중에 약이 없으니 세월을 늘릴 수도 없어라

용은 세모를 수심하여 깊은 골짜기에 몸을 감추고

학은 가을의 푸르름을 좋아라고 푸른 하늘에 오르도다

국화를 꺾어 들고 애오라지 한 때나마 취해 볼까 하건만

남은 구름, 안개에 가리웠네

거북 머리에 해당하는 반구대에는 1885년에 세워진 포은대영모비, 1890년에 세워진 포은대실록비, 1901년에 세워진 반고서원유허비실기의 세 비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비각이 있다. 이들 비석에는 포은 정몽주, 회재 이언적, 한강 정구 세 학자들을 추모하는 글이 기록되어 있다.

세 비석 가운데 포은대영모비 글씨가 가장 또렷하게 잘 남아있으며, 중간에 있는 포은대실록비는 글씨가 흐릿하여 판독하기 힘들다. 그리고 반고서원유허비실기는 전서체로 쓰여 있다.

비각 근처에는 대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옛날 반고서원은 유허비 아래 이 대나무 숲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 1965년 사연담 건설로 이 지역도 물에 잠기면서 서원은 없어지고 비석들만 지금 자리로 옮긴 것이다. 유허비각 바로 앞에 있는 주춧돌도 원래 서원 자리에 있던 것을 옮겨온 것이다.

정몽주 등을 추모하는 유허비 바로 밑 암벽에는 빼어난 필체의 글씨들이 빼곡히 새겨져 있다. 조선 시대 이 지역을 거쳐 간 수령들의 이름이다. 수많은 글자 가운데서도 ‘반구’ ‘옥천선동’이 가장 크게 새겨졌으며 뛰어난 명필이다. ‘반구’라는 글자와 ‘순상조공석우유애비’라는 글자가 있는 감실 사이에는 학 그림도 있다. 이 그림은 날개를 접고 등 쪽으로 부리를 향한 학의 모습이 뚜렷하다. 바위에 새긴 그림인데도 깃털까지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반구대 학 문양

고려, 조선 시대 사람들은 대곡천의 여러 문화 유적 중에서도 반구대 각석과 바로 옆에 있었던 서원에만 관심을 집중했을 것이다. 반면에 반구대나 천전리 각석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암각화에만 열광하고 반구대 각석에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똑같은 문화재라도 시대의 흐름이나 의미 부여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온다.

반구대와 천전리에는 이렇게 수천 년의 시간을 넘나들면서 서로 이웃한 장소에 글씨와 그림을 남겨두고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남기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이런 이름들을 새겼을 것이다. 선사시대 사람들도 이름이 있었다면 그림 옆에 이름을 새겼을지도 모를 일이다.

## 2. 반구서원과 관련 문화유적

반구대 각석 맞은편에는 반구서원이 자리 잡고 있다. 옛날에는 이름난 정치가나 학자가 귀향을 내려오면 그 고장의 선비들이 찾아들어 학식을 넓히는 좋은 기회로 삼기도 했다. 그리고 이름난 학자가 그곳을 떠나고 나면 머물렀던 장소에 서원을



반구서원

세워 그 분의 덕을 추모하였다.

그러니 고려 말 뿐만 아니라 조선 시대까지 오래도록 우리나라 선비들의 우상이었던 정몽주가 유배 생활을 한 이곳에 서원이 들어서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렇게 세워진 것이 반구서원이다. 반계서원이라고도 하는 이곳에는 강건너 유희비의 세 학자를 기리고 있다.

영남지방의 대표적 성리학자인 세 사람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숙종 38년(1712)에 처음 건립된 반구서원은 영조 4년(1728)에 화재로 소실되어 없어졌다가 이듬해 다시 복원되었다. 그러나 고종 8년(1871)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따라 또다시 없어졌다. 지금의 서원 건물은 이 지역 유림들에 의해 1965년에 다시 건립한 것이다.

영남지방의 대표적 성리학자인 세 사

서원의 '지의문'이라는 출입문에는 '반구서원'이라는 현판이 함께 걸려있다. 이곳을 지나면 세 현인의 덕을 따르겠다는 뜻을 가진 '삼현제'라는 현판이 걸려있다. 건물 뒤로는 세 학자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삼현사가 자리잡고 있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아늑한 분위기를 풍기는 반구서원에서는 해마다 음력 3월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

반구서원 바로 옆에는 집청정(集淸亭)이라는 정자가 있다. 이 건물은 18세기 무렵 최신기가 지은 경주 최씨 문중의 정각으로 울산 지역에 현존하고 있는 몇 안되는 정자다. 당시 문인 권해가 엮은作品集 <집청정 시집>에는 260여 명의 한시 작품 406수가 수록돼 있다. 현재 남아 있는 건물은 1933년 중수한 것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실, 예절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반구서원 뒤에는 또 한 채의 오래된 정자가 자리잡고 있다. 청안 이씨 문중 정자인 모은정(慕隱亭)은 19세기 말 이용필(1849~1906)이 포은 정몽주 선생의 유덕을 기리기 위해 정각을 지으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자 1920년 그 아들 정혁과 형제들이 선대의 뜻을 계승해 정자를 지었다. 두 군데 출입문의 서까래는 다듬지 않은 통나무를 그대로 얹어 놓았다. 원래 이 정자는 바로 옆집 자리에 있던 것을 한국전쟁 때 지금 자리로 옮겨지었다.

모은정 뒤에는 사서각이 자리잡고 있다. 책을 보관하는 서고는 서원 건물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이곳에서는 특이하게도 서원과 사서각이 각각 따로 울타리를 둘러 독립된 공간을 유지하고 있다. 사서각 옆으로는 검은색 대나무인 오죽이 자라고 있다 옛날부터 신성한 곳에서만 자란다고 하여 귀하게 여겼던 오죽은 강릉에 있는 오죽현이 유명하다. 지조의 상징인 오죽은 생명력이 약해 청죽과

같이 있으면 그에 밀려 결국 없어진다고 한다.

반구서원과 집청정, 그리고 모은정이 있는 마을 이름은 서원 마을이다. 서원 마을 주차장에서 도로를 따라 조금만 더 들어가면 안마을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마을은 청안 이씨 집성촌으로 현재 열다섯 집 정도 살고 있다. 이곳에서 산골로 다시 들어가면 한실 마을이 있다. 이들 마을을 모두 합쳐 대곡리라 부른다. 원래 대곡리에는 이들 마을 외에도 여러 마을이 더 있었지만 사연댐 수몰로 모두 없어지고 지금은 이렇게 세 곳만 남게 되었다.

아름다운 경치는 인간들만 즐겼던 것은 아닌가 보다. 반구대와 암각화 중간에는 공룡 발자국도 남아있다. 천전리에 발자국을 남겼던 공룡들이 이곳까지 왕래하면서 흔적을 남긴 것이다. 주차장에서 셋강에 놓인 다리를 건너자마자 오른쪽에 있는 공룡발자국 입구에는 안내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입간판 있는 곳에서 냇가로 조금만 내려가면 공룡 발자국이 나타난다. 이곳의 공룡 발자국은 천전리 공룡 발자국에 비해 냇가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 있다 보니 희미하게 흔적이 남게 된 것이다.



반구대 공룡발자국

### 3. 명승 - 울주 반구천 일원

2021년 5월 4일 문화재청은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한 대곡천 일대를 명승 제117호로 지정하였다. ‘명승’은 유적과 주위 환경이 뛰어난 경관을 이루고 있는 곳에 한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명승 지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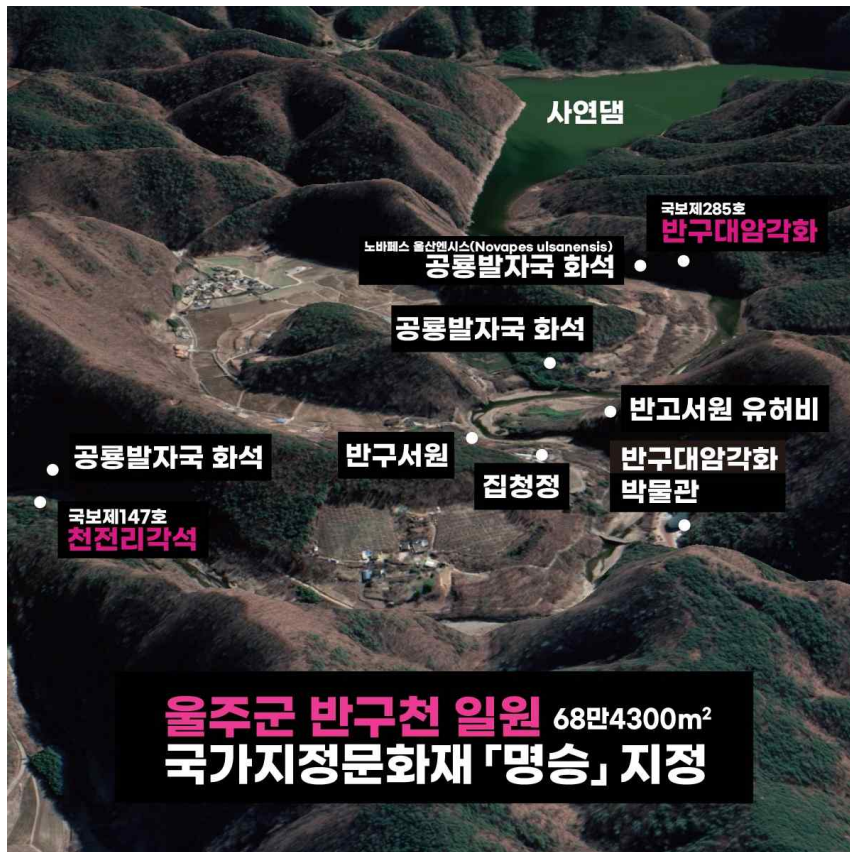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각석을 ‘대곡천 암각화군’으로 세계유산 등재에 앞서 국가지정문화재 ‘명승’부터 우선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따라서 이 일대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유산 자체의 물리적 보호와 학술적 연구에 대한 토대가 마련돼 효율적인 보존과 유지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결국 향후 유네스코의 심의에서도 유리하게 작용되도록 세계유산등재 신청 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이 필수라는 이유였다.

명승 지정 내용은, 1) 경치가 아름다운 곡류하천이 잘 보존되고 있으며, 정자에서 아름다운 공간을 감상할 수 있는 등 자연유산과 자연경관·문화경관이 어우러진 복



< 겸재 정선의 반구 >

합명승으로서 가치가 있음. 2) 물이 산을 감아 돌며 만들어내는 하천을 중심으로 공룡발자국 화석, 반구대 등 절벽, 협곡, 숲, 옛물길, 습지 등의 다양한 지질지형 경관이 잘 보존됨. 3)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담은 생활 모습이 바위그림에 남아있고, 역사시대의 바위글씨(刻字), 조선시대의 구곡(九曲), 십영(十詠)과 같은 승경을 즐기던 문화가 시, 글, 그림으로 전해오는 등 문화경관이 잘 남아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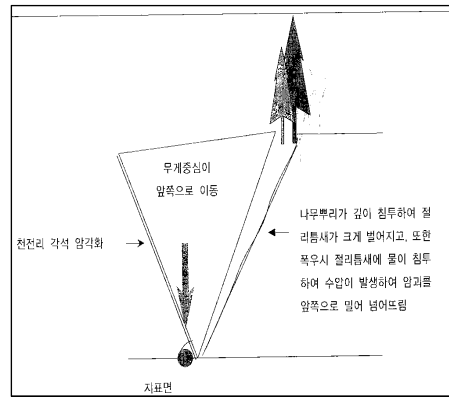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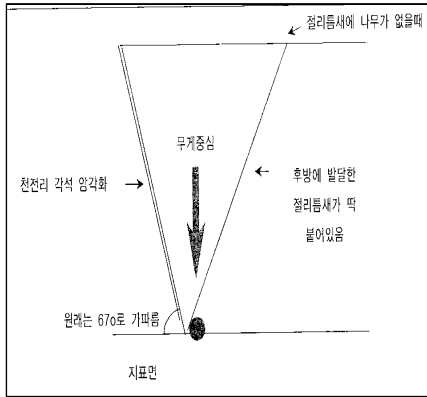
## 천전리 각석

반구대에서 대곡천을 따라 서북쪽으로 약 1km 정도 거슬러 올라가면 계곡 양쪽으로 산봉우리가 치솟아 이어진 곳이 나타난다. 이곳의 높은 바위벽 아래에는 마치 병풍처럼 대형 암석이 둘러 서 있는데, 계곡 바닥에는 약 10여 명이 한 자리에 앉을 수 있을 만큼 평평한 반석들이 깔려 있다. 이곳을 일명 서석대(誓石臺)라고 한다.



### 1. 위치

천전리 각석은 대곡천 물가에 위치해 있는데 앞쪽은 약 265m 정도의 산에 막혀 있어 오전에만 잠깐 햇볕이 들어온다. 그리고 동동남 방향을 향하면서 약 23도 정도 앞으로 기울어져 있다. 따라서 비바람의 피해를 비교적 적게 받지만 한편으로는 아래 그림처럼 뒷면 절리(갈라진 틈)로 나무뿌리가 침투할 경우 앞으로 무너지는 위험성도 존재한다. 높이는 2.7m, 너비는 9.5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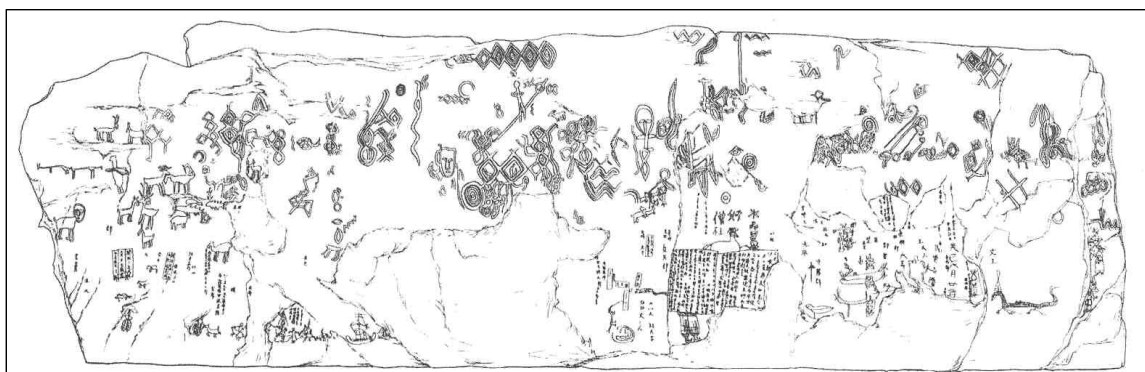


## 2. 바위 성질

고온 진흙이 오랜 기간 쌓여서 만들어진 비교적 강도가 낮은 세일 암질이다. 표면은 1~2cm 정도의 얇은 세일이 변성되어 단단하게 변한 호온펠스로 덮여 있다. 각석은 이 호온펠스 면에 새겨져 있으며, 호온펠스 면이 단단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여러 조각과 글씨가 남게 되었다.

## 3. 발견과 문화재 지정

1970년 12월 24일 동국대학교 박물관 불적조사단에 의하여 발견되었으며, 1971년 2차례에 걸쳐 정식으로 조사된 후, 1973년 5월 8일 국보 제147호로 지정되었다. 천전리 각석은 발견된 뒤 서석(誓石, 또는 書石)이라는 이름으로도 널리 알려졌는데, 이는 바위 밑 부분에 있는 명문(銘文)의 내용 때문이다.



#### 4. 그림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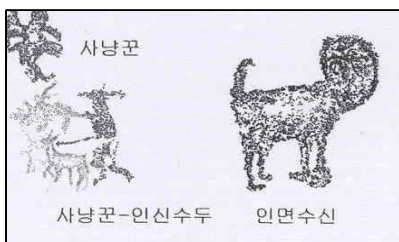
: 대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구분	새김수법	주 내용	그림 위치	추정 제작시기
①	면쫄기 (평면그림)	사슴류를 대표로 하는 동물그림	위쪽과 중간 부분	신석기후기 ~ 청동기후기
②	선쫄기 (굵은선그림)	기하학, 추상형 그림(마 름모, 동심원 등)	면쫄기 그림을 훼손하면서 위쪽과 중간 부분	청동기(후기) ~ 철기시대
③	선긋기 (가는선그림)	기마행렬도 및 각종 그 림과 명문들	위쪽과 중간의 그림과 겹치 지 않는 아래 부분	신라시대 (5~6세기)

#### 5. 면쫄기 그림(평면 그림)

2003년 8월에 국민대학교 박물관에서 천전리 암각화 전사실측조사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총 239개체의 동물그림을 찾아냈다. 사슴류가 111개체로 가장 많으며 호랑이 50, 미상 23, 사람 6개체 및 기타 반인반수, 족제비, 수달, 여우, 너구리, 삿괭이, 멧돼지, 산양 등의 그림이 확인되었다. 반구대와 관련하여 고래를 표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그림도 5개체 발견되었다. 이들 중 특징적인 몇 그림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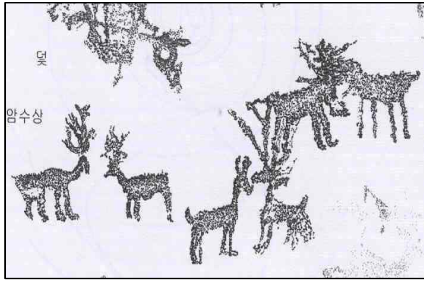
##### 1) 인면수신(인신수두) 그림



짐승 가면(가죽)을 쓴 사냥 장면이나 인면수신 그림은 사냥에서 실제 짐승의 육안을 속이려는 의도보다는 샤머니즘의 신앙사유로 불 때 동물의 영혼 세계에 접근하려는 혹은 친밀하려는 주술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사냥꾼 사회에서는 동물로 가장하여 동물의 움직임을 흉내내어

춤추면서 사냥에서 주술효과를 얻으려 하는 사례가 있다. 호랑이를 익살맞게 표현했다는 주장도 있으며, 짐승과 몸통을 따로 떼어 보는 견해도 있다. 인면수신 그림은 주로 신석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 과도기에 나타난다.

## 2) 사슴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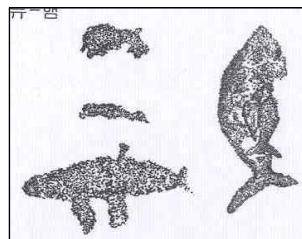
암수상 중 둘 다 뿔이 있는 경우는 순록이며, 사슴은 수컷은 뿔이 있고 암컷은 뿔이 없다. 사슴은 추운 지역 사냥꾼들의 주요 식량이며 영혼의 세계와 관련된 신전수이다. 사슴류에서는 특히 암수상, 모자상, 가족상 그림이 많이 보이는데, 이는 사슴의 번식을 빌었던 주술, 종교적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 3) 작은 짐승과 남자 그리고 꽃



개체를 따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꽃밭에서 뛰어노는 모습의 무리 등 하나의 상황이 설정되어 이야기를 엮어내는 구성으로 개체별 구현인 반구대보다 진전된 조형의식을 보여준다. 성기가 도드라진 사람은 사냥꾼, 혹은 주술사로 보며 동물은 사슴으로 본다. 남자가 사슴을 기르면서 같이 들을 거니는 생활 모습을 생생하게 그린 것인데, 이를 짐승의 생육과 그들의 영혼 세계를 주관하고 있는 지신 또는 산신에게 생산이 왕성하도록 생식적 주술을 행하고 그 대가로 많은 사슴 무리를 보상받고 이는 성 신앙 사냥주술 그림으로 보기도 한다.

## 4) 고래류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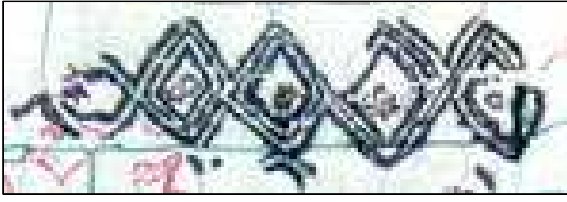


반구대와 관련하여 천전리에서 확인된 고래류의 모습인데 아기고래를 품고 있는 모자상이 특징적이다.

## 6. 선쪼기 그림(굵은 선그림 - 기하, 추상형 문양)

조형 발전은 자연주의적(사실적) 표현에서 기하 형태(추상적)로 변하는 것이 보편적 현상이다. 추상형 문양은 자연에 근거하여 단순화와 추상화 과정을 거쳐 형태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변화에는 시대성이 반영되는데, 선사 시대 가장 중요한 변화는 농경의 시작이다. 따라서 추상형 문양은 농경에 영향을 주는 자연과 식물형상을 모티브로 하여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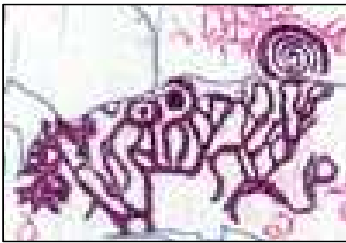
1) 마름모



2) 동심원



3) 회오리(나선무늬)



4) 물결무늬



5) 얼굴(가면)그림



6) 뱀 추정 그림



## 7. 선긋기 그림(가는 선 그림, 세선각화)

추상형에 비해 묘사하기가 쉽고 짧은 시간에 제작이 가능하다. 충실한 사실성을 바탕으로 묘사된 것이 특징이다. 신라 시대에 걸쳐 꾸준히 그려진 그림으로 신라인의 생활모습과 신앙의식을 잘 보여준다. 원명과 추명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부 지갈문왕과 관련하여 천전리를 신라 왕실의 가계 분화가 촉진되는 시기에 새로이 분화되어 나온 한 가계 세력의 상징적인 장소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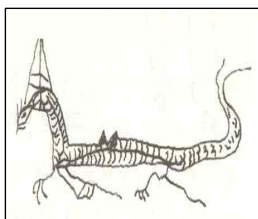
### 1) 귀족 행렬



### 2) 말을 탄 행렬과 배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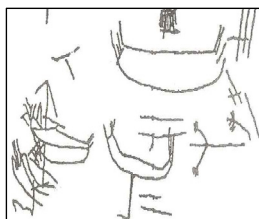


### 3) 사람과 말 그림



<천전리 용그림>

### 4) 용과 새 그림



<천전리 새 그림>

## 8. 명문

‘성법흥대왕’ 글자가 보이는 을묘명, 호세, 흠순, 영랑, 안장, 수품, 표훈 등의 이름이 보이는 여러 명문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원명과 추명이라 불리는 명문이다.

### 1) 원명(을사명)

乙巳(.....)沙喙部葛(.....)文王 覓遊來始得見谷之  
古谷无名谷善石得造□□以下爲名書石谷字作之  
并遊友妹聖□光妙於史鄒女郎王之(하략)

을사년(의 어느 날 어느 때에) 사훼부의 갈(문왕이신 누구누구 갈)문왕께서 찾아와 놀러오시었다가 처음으로 골짜기를 보시게 되었다.

오래된 골짜기인데 이름이 없는 골짜기여서, 좋은 돌을 얻어(무엇인가를) 만들게 하시고는 서석곡이라 이름하시고 글자를 쓰게 하셨다.

함께 놀러온, 벗으로 사귀는 누이는 성스럽고 □하여 빛처럼 오묘하신 어사추여량님이시다.(하략)

### 2) 추명(기미명)

過去乙巳年六月十八日昧 沙喙部 徙夫知葛文王 妹於史鄒女郎王 共遊來 以後□□八□年過去  
妹王考 妹王過人 丁巳年 王過去 其王妃只沒尸兮妃愛自思 己未年七月三日  
其王與妹共見書石叱見來谷  
此時 共王來 另卽知太王妃 夫乞支妃 徙夫知王子郎 深□夫知共來(하략)

지난 을사년 6월 18일 새벽에 사훼부의 사부지 갈문왕과 누이 어사추여량님께서 함께 놀러 오신 이후 (몇) 년이 지나갔다.

누이님을 생각하니 누이님은 돌아간 사람이라. 정사년에는 (갈문)왕도 돌아가시니, 그 왕비인 지물시혜비께서 애달프게 그리워하시다가 기미년 7월 3일에 그 (갈문)왕과 누이가 함께 보고 글 써놓았다는 돌을 보러 골짜기에 오셨다.

이때 함께 님 오시니, 무즉지 태왕의 비인 부걸지비와 사부지 (갈문)왕의 아드님이시 심□부지께서 함께 오셨다.(하략)

### 3) 등장인물 해석

신라식 이름	존호(시호) /한문이름	가족관계
사부지갈문왕	입종갈문왕	지증왕의 아들이자 법흥왕의 동생, 진흥왕의 아버지 조카딸(법흥의 딸) 지소와 혼인
어사추여랑	보현공주(?)	입종의 누이동생. 어떤 기록에도 등장하지 않음. 최근 발견된 필사본 화랑세기에서 처음 보현으로 등장
지물시혜비	지소부인	입종의 부인이자 법흥왕의 딸. 진흥왕의 어머니
무즉지태왕	법흥왕	지증왕의 맏아들이자 사부지갈문왕의 형
부걸지비	보도부인	법흥왕의 부인이자 지물시혜비의 어머니. 진흥왕의 외할머니
심맥부지	진흥왕	부 : 사부지갈문왕, 모 : 지소부인

### 4) 연표 정리

514	법흥왕즉위	535(을묘)	대왕호 사용(성법흥대왕 : 을묘명)
520	율령시행	536	건원 연호사용(신라 최초)
525(을사)	원명 작성	537(정사)	사부지갈문왕 사망
527	불교 공인	539(기미)	추명 작성
531	상대등 설치	540	진흥왕 즉위
532	금관가야 병합		

### 5) 생각해 볼 문제들

① 이 시기, 즉 법흥왕, 진흥왕 무렵에 적어도 신라 지배층 사회에서는 순 신라식 이름과 순 한문식 이름이 병존 혹은 대치되는 과도기였을 가능성이 높다. 태종무열왕 이후는 신라 최고위 지배층에서 고유명은 종적을 감추고 한문식 이름만이 나타난다.(본격적인 중국문물의 도입)

② 524년 제작된 울진봉평신라비에는 법흥왕을 모즉지매금왕이라 불렀는데 매금왕은 연맹장인 이사금, 마립간 성격으로 그 자체가 왕의 초월적 지위를 상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을묘명(535)에 나오는 ‘성법흥대왕’, 추명(539)에 나오는 무즉지태왕이란 호칭을 볼 때 법흥왕이 추진한 왕권 강화책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③ 지물시혜비와 부걸지비가 심맥부지와 함께 천전리를 찾은 것이 539년인데, 바로 다음 해인 540년에 심맥부지가 7살의 어린 나이로 진흥왕이 되고 한 동안 외할머니인 부걸지비(보도부인)가 후견한 점으로 볼 때, 539년 천전리를 찾을 무렵 심맥부지가 차기 왕으로 결정이 되자, 그 기쁨을 남편과 함께 나누기 위해 남편의 체취가 서려 있는 천전리를 다시 찾은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④ 법흥왕은 신라 왕경 6부 중 ㉠부<sup>1)</sup> 소속인데, 그 동생인 사부지갈문왕은 사궤부 소속이다.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과 동생의 부 소속이 다르다는 점은 특이하다. 그런데 법흥과 사부지의 아버지인 지증왕은 또 사궤부 소속이다. 당시 6부중 ㉠부, 사궤부는 김씨 세력, ㉡부는 박씨, 한기부는 석씨 세력이다.

⑤ 사부지갈문왕의 아내인 지물시혜비를 왕비라 호칭하고 있다. 명문 뒷부분에 나오는 作食人 이름을 보면 귀족 부인을 妻 또는 婦로 호칭한 것으로 볼 때 갈문왕은 국왕 밑의 신하가 아니라 국왕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6) 천전리의 성격은?

### ① 유람

명문 중 ‘遊’라는 글자에 의미를 부여하며 원명에서 천전리를 찾은 시기가 음력 6월로 더운 여름철(피서)임에 주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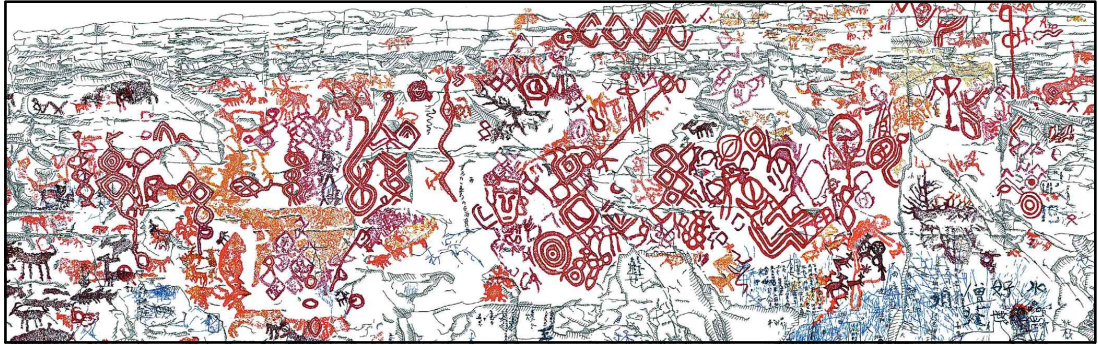
### ② 제사

중, 상단 암각화에 주술적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면 이곳은 청동기 이후 신라 시기까지 중요한 제의장소였을 가능성이 높다. ‘遊’라는 글자는 단순히 ‘논다’는 의미 외에 종교적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데. 삼국사기 화랑에 대한 기록 중 遊娛山水를 명산대천에 대한 제의행위로 파악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추명에 보면 을사년 새벽에 사부지갈문왕과 어사추여랑이 천전리를 찾은 것으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새벽에 유람과 피서를 오는 경우는 상상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새벽이라는 시점은 유람보다는 제의가 천전리를 찾은 목적일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作食을 단순한 나들이용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제수용품을 장만하는 일로 간주하며 작식인도 제의를 보조한 개인 또는 집단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

원명은 피서라 하더라도 추명은 망자에 대한 추도의식이 확실해 보인다. 왕족부터, 귀족, 화랑, 승려 등 다양한 사람들이 천전리를 찾고 있음을 볼 때 이곳을 어떤 특수한 하나의 목적성을 가진 장소로 규정하기 보다는 찾아오는 사람들에 따라 심신수련, 단순유람, 신비한 분위기에 이끌려 소원성취를 기원하기 위해 찾는 경우 등

1) ‘㉠’의 신라식 발음은 ‘탁’이다.

다양한 목적성을 가진 장소로 파악하는 것이 더 역사적 사실성에 부합되는 해석일 수도 있다.



## 장생포고래박물관과 장생포마을

### 1. 장생포고래박물관



2005년 울산시 매암동 장생포 해양공원 내에 부지 2,000평, 지상 4층 건물 규모로 울산광역시에서 건립한 국내 유일의 고래 박물관이다. 선사 시대부터 고래잡이의 전진기지였던 이곳에, 1986년 포경이 금지된 이래 사라져가는 포경 유물을 수집, 보존하고 전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전시유물은 1985년까지 고래잡이에 종사하던 인근 주민들의 소장품을 기증받은 것이다.

박물관 1층은 기획전시실과 더불어 장생포와 고래, 울산의 지형변화, 반구대 암각화 특별전시실, 인간과 고래 등을 전시하고 있다. 2층은 고래탐험실로 고래의 크기, 사진 코너, 고래의 꿈, 기념품샵, 어린이체험실 등이 있으며, 3층은 고래연구실, 귀신고래 이야기, 고래잡이 역사, 해체장과 착유장, 고래와 산업의 가치, 우리바다, 우리고래, 전망대 영상실 등으로 꾸며져 있다. 귀신고래 전문관에서는 귀신고래의 울음소리와 회유경로, 실제 크기에 가까운 귀신고래의 모형을 볼 수 있다. 고래해체 복원관은 1960년대 포경조합에서 운영하던 고래 해체장(바다 건너 한진중공업 쪽) 건물을 일부를 가져와 복원해 놓은 것인데, 포경업에 관한 대형 사진과 함께 전시되어 있다. 착유장의 커다란 착유기를 보면 다소 언짢은 기분도 들지만 석유가 생산되기 전 고래 기름인 경유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쓰였는가를 알려주는 각종 전시

품을 보고 나면, 오히려 선진국들이 고래잡이에 왜 그토록 열광했던가를 이해하게 된다.



전시장을 둘러본 뒤 건물의 왼쪽 뜰로 나가면 1985년 퇴역한 포경선 제6진양호(1977년 제작-89톤급 - 진양수산)가 포경포까지 갖춘 실물 그대로 전시되어 있으므로 승선해 볼 수 있다. 또 사라져가는 귀신고래 보호를 위해 1962년부터 동해바다를 극경회유해면에 지정한다는 기념비와 장생포 출신의 가수 윤수일의 '환상의 섬' 노래비도 볼 수

있다. “환상의 섬”이란 장생포 입구의 죽도를 말한다. 대나무가 많았던 죽도는 장생포항의 동쪽 끝, 양죽마을 앞에 있었는데, 울산만의 거센 파도를 막아주어 장생포항이 동해안의 대표적인 양항이 될 수 있게 하였다. 1979년 죽도와 매암동 일대는 매립되어 관공서 시설이 들어섰고 조그만 동산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한편 고래박물관과 이웃하여 지난 2006년 3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고래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사라져가는 고래의 보호를 위한 자료수집과 연구는 물론, 해양개발 등 인간의 바다 활동에 따른 고래들과의 마찰을 완화하기 위한 조사와 연구, 환경을 살리고 고래와 가까워지는 다양한 방법의 모색을 위해 일하는 기관이다. 그러므로 장생포에서는 고래의 과거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도 함께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 2. 고래 마을 장생포를 들여다 보다

### 1) 일제강점기 장생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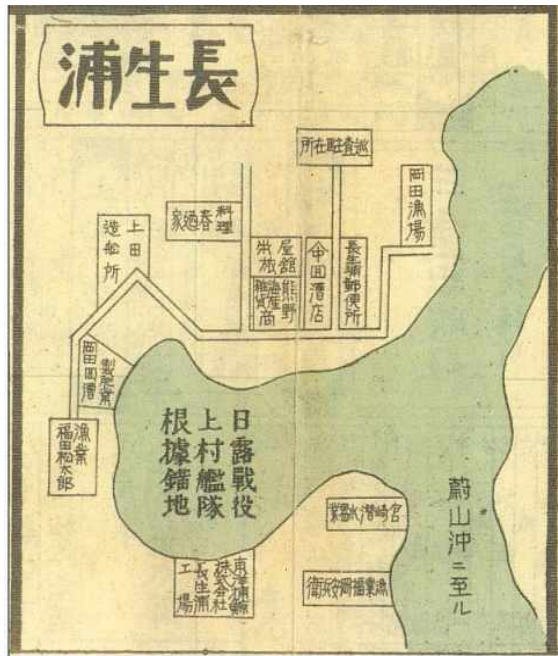
장생포란 장승이 세워진 포구라는 뜻으로 천혜의 어항인 장생포항의 중심 지역이며, 1970년대 이전에는 마을의 왼쪽 끝(현재 해운항만청 자리)에는 죽도가, 오른쪽 깊숙한 곳에는 납도(현재 동양나일론 공장, 일명 개구리섬 - 납작하다는 뜻)가 있었다.

장생포항은 장생포 만에 있으며, 울산만을 둘러싼 3개의 항구(방어진항, 염포항, 장생포항) 중 하나이다. 일제강점기 행정구역은 대현면으로, 장생나루가 있던 장생포 마을과 건너편의 내해마을, 그 오른쪽의 유환(유안이라고도 부른다)마을이 둘러싸고 있었다. 이곳은 원래 만이 깊어 7~800톤의 배들도 거뜬히 들어 올 수 있는 곳이었으며, 삼면이 온통 바다를 향해 열려있지만, 항구의 입구에 죽도(竹島)가 있어

풍량이 일지 않으므로 마치 호수와 같았다고 한다. 1959년 사하라 태풍 때에도 여기는 풍랑조차 일지 않았다는 장생포 어른들의 경험담은 이 항구의 가치를 잘 말해주고 있다.

건너편의 내해마을(용잠)에는 지금도 내해조선이 자리하고 있는데, ‘위(上)쪽 산 끝이 튀어 나온 곳’이라 하여 “웃치미”라 부르기도 하였다. 19세기에는 러시아 태평양 포경회사기지, 해방 직전까지는 일본의 동양포경회사 기지가 들어서 있던 곳이다. 1970년대 동해조선소를 이어, 1989년부터 한진중공업이 자리 잡고 있으며 마을은 공업화에 밀려 사라져 버렸다.

1930년 일본인이 작성한 왼쪽 지도는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장생포 마을을 나타낸 것이다. 비교적 간략하지만 당시의 마을 모습이 몇 가지 확인된다. 먼저 장생포 마을 중심지에는 주로 상점들이 있으며, 건너편 내해마을 쪽에는 공장들이 들어서 있었다. 포경업자나 대형 어업 종사자들은 공장은 내해마을에서 하였지만 대개 장생포 지역에 거주하고, 공장의 인부들과 어업종사자들 일부는 내해마을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대일본직업별명세도 >

가운데 보이는 ‘상촌함대근거착지(上村艦隊根據地)’는 1904년 러일전쟁 때 일본해군 제2함대 사령관 카미무라 함대의 주둔지였음을 나타낸다. 지도 맨 위쪽 (동쪽 - 울산만 쪽) 강전어장(岡田漁場)은 장생포에서 멸치지인망(후리막) 어업을 하던 이 지역 유력자 오카다 추지로(岡田忠次郎)의 어장이다. 그는 마을의 중심지에서 강전상점을 경영하면서 소형 포경선으로 멩크고래를 잡기도 하였는데, 현재 왕고래 식당자리에서 고래 해체장도 운영하였다.



어장의 아래(서쪽)으로는 관공서가 이어지는데, 우편소와 경찰서의 위치는 지금과도 비슷하다. 그 아래로 보이는 잡화상과 양조장, 여관, 등 많은 상점들을 통해 이곳이 장생포 마을의 중심지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마을의 모퉁이를 돌면 상전조선소(上田造船所)가 보인다. 우에다(上田)는 오카쥬우로(岡十郎)와 함께 1899년 일본 원양어업주식회사의 발기인을 참가했던 우에다도사크(上田桃作)이다. 후에 동 회사의 사장을 역임하였으며 장생포에도 포경기지를 만들어 진출하였던 인물이다. 그 다음의 비료공장, 포경회사 등은 모두 동양포경회사의 고래잡이와 관련된 회사들이다. 현재 지명은 고사동과 용잠동이다.

1930년대 이전부터 장생포항 주변에는 한 해 수백 마리씩 고래를 잡는 포경업을 제외하더라도 연어잡이, 멸치 후리막, 정어리잡이, 제주도 해녀들을 이용한 여름철의 천초(天草)채취 등이 함께 성하였다. 따라서 생산된 어물을 가공하는 통조림 공장에서부터 정어리 제유공장, 고래 뼈를 이용한 비료공장까지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한 회사들이 설립되어 들어서 있었다. 이런 사실들은 1917년 <울산안내> 책자에 실린 당시의 광고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 장생포 지역 회사들의 광고 >

## 2) 장생포 신사



<신사의 제단 유구>

장생포 세관통선장 뒤편 장생포동 212-2번 지에는 일제강점기에 세운 장생포신명신사의 흔적이 남아있다. 장생포에서 가장 높은 이곳 ‘천지먼당’에 오르면 장생포항 일대는 물론 건너편 고사, 내해마을까지 한 눈에 들어온다.

현재 신사 자리에는 본전 앞의 높은 축대와 계단, 그리고 본전의 기단부 등이 부서진 상태로 남아 있다. 본전 기단의 크기를 보아 그다지 큰 규모의 신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무너진 계단에는 1913년 설립된 ‘장생

포어업조합’ 글자가 새겨진 구조물도 방치되어 있다.

1927년 10월 세워진 이 신사의 제신은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와 오모노 누시노미코토이다. 신사의 건립과 운영에 대해서는 본전 기단부 앞쪽에 붙어 있었던 동판마저 사라져버려 자세하게 알 수 없지만, 1917년 당시 400명 이상의 일본인들이 장생포 지역에 거주하였다는 기록과 몇년 전 이곳에서 발견된 공덕비를 통해 몇 가지 사실이 확인된다.

신사 건립 때 토지를 기부한 마루야마 토시노스케가 경내의 땅 222평을 기증하였고, 1932년 4월 지역의 일본인 신자들이 신사의 경내에 비를 건립하였다고 한다.

## 3) 울산만심상소학교와 장생포초등학교

일본인들은 집단정착촌을 형성하면서 지역별로 학교조합을 설립하여 지역 규모에 알맞은 학교를 설립하였다. 장생포일대의 일본인 자녀들을 위해 설립된 이 학교는 1909년 1월 인가받아 그 다음해 6월 개교하였다. 당시 학생 수는 33명이었다. 이주어촌 방어진과 마찬가지로 일찍 학교가 세워진 것은 일본인의 이주와 정주가 빨랐음을 의미한다. 1920년 장생포공립심상소학교로 개칭되었으며, 1941년 장생포공립국민학교로 다시 이름이 바뀌었다. 광복 이듬해 장생포국민학교가 개교하였지만 건물이 없어 1952년까지 폐교된 이곳에서 우리 학생들이 수업을 받기도 하였다.

이곳에서 수업을 받았던 장생포 사람들은 아직도 학교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현재 평양상회 건물자리에 정문이 있었고, 이 가게 뒤편으로 가운데는 교사가, 서쪽에는 사택이, 오른쪽에는 운동장이 있었다고 한다. 교사는남향의 3칸짜리 두 동이었으며 건물 앞에는 커다란 히말라야시다 나무가 서 있고, 학교 울타리에는 동백나무가 뻗뻗하게 둘러쳐져 있었다고 한다. 사택이 있었던 서쪽 골목으로 들어가면 옛 지번대로 집이 들어서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의 장생포초등학교가 설

립될 당시 운동장에는 커다란 동산이 있었는데 5, 6학년 고사리 같은 어린이의 손으로 그 많던 흙을 모두 치웠다고 장생포의 손포수, 손남수옹은 회고한다. 해방 후 1970년대 포경업이 한창일 때 이 학교의 학생 수는 2,000여 명이 넘었으나, 현재는 전교생 수가 70여 명 남짓하여 폐교의 위기에 놓여 있기도 하다.

한편 이 시기 한국인 아이들은 장생나루에서 배를 타고 반대편 마을인 용잠학교나 대현초등의 전신인 대흥학교에 다녔다고 한다. 이 두 학교는 모두 조선제일의 금광왕 이종만이 세운 학교로 울산의 공업화에 밀린 용잠마을의 옛 터에는 이를 기리는 비가 서있으며, 대흥학교는 두어 번의 폐교와 개교를 거듭하다 1927년 대현공립보통학교로 발전하여 현재까지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 4) 장생포 신위당과 포구나무



<장생포 제당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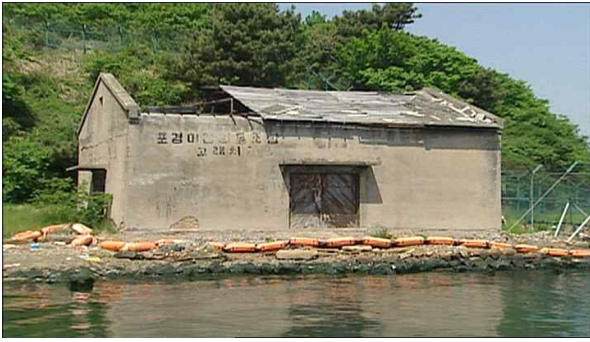
장생포신위당은 마을 노인정 뒤, 장생포 산 78번지에 있다. 제당이 처음 건립된 것은 1900년경으로 추정되며, 현재 건물은 1938년 9월 다시 건립된 것이라고 한다. 정면 1칸, 측면 1칸의 목조 기와지붕 건물은 다소 높은 축대 위에 있다. 정면 입구에는 신위당이란 현판이 걸려 있으며 건물 바깥 오른쪽 벽에는 신위당을 지을 때 기부 내용을 적은 나무판이 걸려있다. 건물 안에는 장생포에 제일 먼저 터를 잡고 살

았다는 설씨 부부 등 6명의 신위가 그려진 영정이 모셔져 있다.

이곳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매년 정월 대보름에 신위당에 모신 영정에게 고기와 술을 바치는 당산제를 지내고, 고래잡이가 시작되는 음력 10월 5일에는 풍경제를 지내며 풍어와 뱃길의 안전을 기원하였다. 또 포경선의 선주들은 첫 고래를 잡으면 제당 뒤의 커다란 포구나무에 고래꼬리를 매달고 풍경을 기원하기도 하였다. 신위당 뒤에 있는 포구나무는 높이가 15m나 되어 제당 건물 전체를 덮고 있는데 수령은 약 150년 정도로 추정된다. 원래 두 그루가 있었는데 1959년 사라호 태풍으로 큰 나무는 죽고 현재 이 나무만 남아있다. 장생포에는 이처럼 오래된 포구나무가 장생포양조장 동쪽 언덕 위와 폐동된 양죽마을 제당 옆에도 한 그루씩 서 있다.

#### 5) 포경어업조합의 고래 해체장

포경어업조합의 고래해체장은 남구 고사동 1번지에 있다. 1961년 한국포경수산조합에서 해체장이 없는 영세한 포경업자들을 위해 개인 소유 해체장을인수, 재건축



< 포경협동조합의 고래해체장 창고건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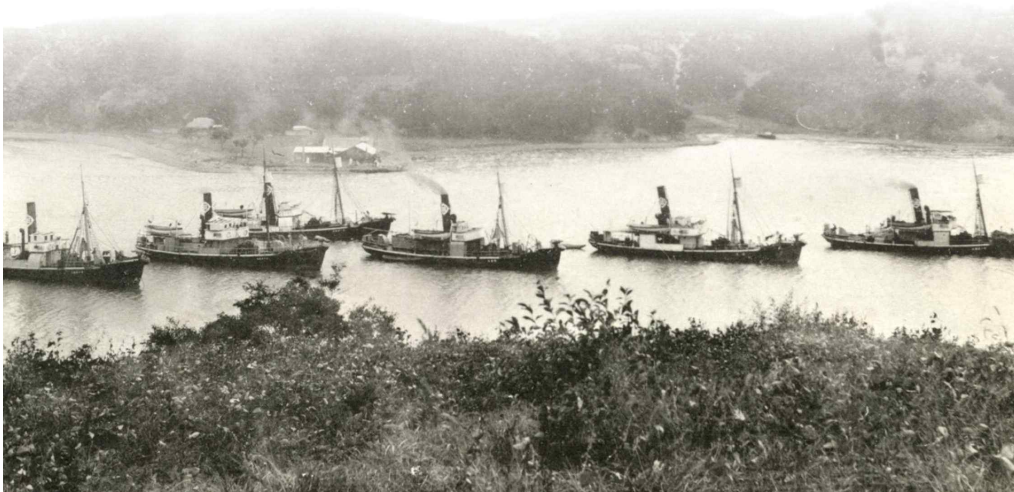
외벽에 1962년 설립된 '포경어업협동조합'이란 글씨도 남아있다. 현재 개인회사 부지 안에 있어 외부인의 출입이 어렵다.

하였다. 이 해체장은 고래잡이가 금지되는 1985년까지 계속 운영되었다.

원래는 모두 5개 동의 건물이 있었다고 하나 해부장, 제유장 등은 대부분 철거되어 고래박물관 안에 복원 전 시되어 있고, 경육 보관창고로 쓰던 건물은 거의 허물어진 채 남아있는데, 창고 안에는 아직도 수출용 고래고기를 담던 상자가 가득 쌓여있다. 건물

#### 6) 동양포경주식회사 울산사업장

동양포경주식회사 울산사업장은 남구 용잠동 491번지 일대, DK울산공장과 성신조선(주) 주변 바닷가에 있었다. 이곳은 지형이 바닷가 쪽으로 튀어 나와 사람들이 웃치미로 불리었으며, 부근에 웃침나루가 있어 장생포와 연결되었다. 19세기 말 나가사키의 러시아 태평양포경회사가 처음 고래해부기지를 설치한 이후 일본 나가사키포경합자회사, 동양포경주식회사 그리고 광복 후 한국인들도 이 해체장을 이용하였다.



동양포경주식회사는 일본 근대포경의 아버지라 불리는 오카주로(岡十郎, 1870~1923)가 러일전쟁 후 동양어업주식회사, 나가사키포경합자회사 등 다수의 수

산회사를 병합, 매수하여 1909년 5월 설립한 회사이다. 그는 조선에 총 7개 포경기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울산사업장은 9,000여 평의 넓은 부지에 가공 시설도 제대로 갖추고 있어 일본 포경업의 가장 모범적인 기지로 꼽혔다. 그의 부탁으로 1906년 장생포를 방문한 일본의 기행작가 에미 스미인(江見水陰)은 <포경선>(1906)에서 동양포경주식회사의 사업장 안에는 고래고기 냉장시설과 소금창고, 사무실, 식당, 목욕장, 기숙사, 제유장, 철공장, 잡동사니 창고 등이 있고, 부두에는 해부선, 사업선, 석탄선, 운송선 등이 소위 '뚝대 머리 숲의 모양'으로 배들이 모여 있다고 하였다.



이 회사는 수십 척의 포경선과 해부선, 포경모선 등을 갖추고 노르웨이 포경법으로 조업하였다. 매년 10월부터 4월까지 10여 척의 포경선으로 참고래, 귀신고래를 비롯하여 돌고래까지 매년 40~50두 이상 포획하여 장생포에서 해체한 후 거의 전량을 시모노세키와 하카타로 실어갔다.

1930년대 한 일간지에는 '고래배가 들어올 때면 수백 명의 구경꾼이 모여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며 3백여 명의 인부들이 주·야의 분별없이 해부하는 현장'이라 하여 고래해체 작업이 장관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1934년 이 회사는 일본수산주식회사에 병합되었다.



# 한국사 속 포경역사

## 1. 삼국시대

삼국시대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포경을 했다는 기록은 없다. 고래와 관련된 것은 흔치 않는 기록으로 아주 귀한 종류에 해당하며 왕에게 진상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고래와 관련된 부분은 간간이 눈에 띄는데, 고구려의 경우 민중왕 때 동해인 고주리가 고래를 잡아 바쳤는데, 그 눈이 밤에 광채가 있었고, 서천왕 때에도 해곡태수가 고래 눈을 바쳤는데 밤에 빛이 났다고 기록되어 있다. 고래 눈은 자체로 빛을 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고래가 수중의 압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압력을 받아도 유지될 수 있도록 시각신경원반(Optic disk)이 있고, 이는 접시모양으로 투명하다. 고래 눈으로 잔을 만들고 여기에 고래 기름으로 불을 켜거나 원반을 볼록렌즈로 하면 밝은 불빛을 만들 수 있다.

신라 첨해이사금 때 동해의 대어 세 마리가 나왔는데 길이가 3장, 높이가 1장 2척이라는 내용은 고래로 추정되고, 무열왕 때 백제 공주에 나타난 죽은 대어의 길이는 백 척이라는 것을 봐서 고래로 추정되며, 먹은 자가 모두 죽었다고 한다.

또한 <삼국유사> 권 제1 기이편 「연오랑 세오녀」에는 연오가 해조(海藻)를 따고 있는 중 홀연히 한 바위가 일어(혹은 일어(一魚)라 함) 그를 싣고, 일본으로 갔으며, 세오가 그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괴이히 여겨 찾아보니 남편의 벗어놓은 신이 있는지라 그 바위 위에 올라가니 바위가 또한 전과 같이 그를 싣고 갔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여기서 말하는 큰 바위 또는 물고기는 고래일 것이다.

동해바다를 고래와 관련시킨 것은 신라 때도 있었다. 조선 후기 사천왕사 터 부근에서 발견된 문무왕 능비의 비편에는 분골경진(粉骨鯨津)이란 글귀가 있다. 문무왕이 죽어 장사지낼 때 화장한 뼈가루를 고래가 사는 바다에 뿌렸다는 뜻이다. 또한 중종 26년(1531)에 발간된 지리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울산」편에는 경해(鯨海)라는 명칭이 있다. 울산이 닿아 있는 동해바다를 경해라 했다.

## 2. 고려시대

고려시대에도 고래와 관련되었다고 추정되는 기록이 있다. 고려 성종의 죽음과 관련하여 성종 16년(997)에 흥례부 태화루에서 잔치를 베풀고, 큰 고기를 잡았는데, 이후 왕이 병들었다는 내용이 있다. 원 간섭기인 원종 14년(1273) 원의 달로화적이 중서성의 통첩에 의하여 동계 및 경상도에 가서 신루지(廩樓脂)를 구하였는데, 신루

03

# 부록

- 
- 연수대상자 명단
  - 강사평가 설문조사표
  - 이수증 출력방법
  - [생활 속 거리두기] 연수 중 단계별 지침
  - 울산교육연수원 신청사 안내도

## 2021년 울산사랑 역사·인물 스케치 직무연수 대상자 명단 \_ 1기

‘울산 애(愛) 한바퀴(문화와 예술을 품은 울산 역사 기행)’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차량
1	꽃바위유치원	원감	경진숙	1조
2	상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원감	윤은외	1조
3	약사가온유치원	원감	최순천	1조
4	개운초등학교	교사	이강숙	1조
5	고헌초등학교	교사	나혜영	1조
6	고헌초등학교	교감	류승진	1조
7	남외초등학교	교사	노종효	1조
8	덕신초등학교	교사	이승진	1조
9	명촌초등학교	교사	남경수	1조
10	삼산초등학교	교사	박복남	1조
11	선암초등학교	교사	임보영	1조
12	야음초등학교	교사	박춘심	1조
13	염포초등학교	교사	유길향	1조
14	전하초등학교	교사	권혜영	1조
15	전하초등학교	교사	이경숙	1조
16	청솔초등학교	교사	김은정	1조
17	청솔초등학교	교사	문미주	1조
18	화봉초등학교	교사	장현주	1조
19	화봉초등학교	교사	황경숙	1조
20	구영중학교	교사	이명희	2조

21	남목중학교	교사	신해숙	2조
22	남외중학교	교감	방경애	2조
23	동평중학교	교사	김정미	2조
24	울산중학교	교사	최정우	2조
25	유곡중학교	교사	김경옥	2조
26	천곡중학교	교사	백종익	2조
27	화암중학교	교감	조혜영	2조
28	효정중학교	교사	이정은	2조
29	남목고등학교	교사	문영신	2조
30	남목고등학교	교사	양정애	2조
31	대송고등학교	교사	김정남	2조
32	무룡고등학교	교사	최향애	2조
33	문현고등학교	교사	공진숙	2조
34	범서고등학교	교사	유해진	2조
35	울산기술공업고등학교	교사	서선미	2조

# 2021년 울산사랑 역사·인물 스케치 직무연수 강사평가 설문조사표

## ‘울산 애(愛) 한바퀴(문화와 예술을 품은 울산 역사 기행)’

구분	설문내용	① 매우 우수	② 우수	③ 보통	④ 미흡	⑤ 매우 미흡
교육 총괄	1. 연수목표를 달성하였다.					
	2. 본 과정의 이수자가 자기계발 또는 학생지도에 도움이 되었다.					
교육 과정 편성	3. 교육과정 편성이 적절하였다.					
	4. 강사 선정이 적절하였다.					
	5. 교육내용이 충실하였다.					
	6. 교육방법이 효과적이었다.					
시설 · 환경	7. 과정 운영자가 친절하였다.					
	8. 연수환경에 만족하였다.					
	9. 식당(도시락) 서비스에 만족하였다.					
기타	10. 본 과정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잘한 점, 개선할 점, 희망사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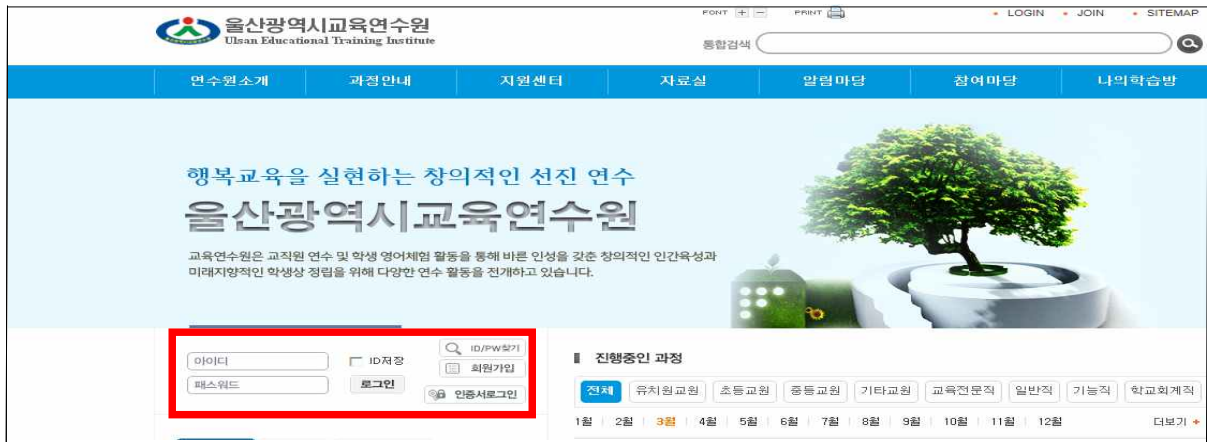
# 이수증 출력 방법 안내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 1.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홈페이지 접속하기

=> <https://edu.ueti.or.kr> 에 접속합니다.

## 2. 로그인하기



### ● 로그인 방법 (2가지)

가. 로그인 :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하기

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 ①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LOGIN) ②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 수정> - <인증서정보> - <인증서 검색>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확인> - <인증서 로그인>

※ 공인인증서 등록은 한번만 하시면 계속해서 사용(개인정보보호)

## 3. 이수증발급 버튼 클릭하기



### 3. 화면 좌측 이수증발급 클릭

행복교육을 실현하는 창의적인 선진 연수  
교육연수원은 교직원 연수 및 학생 영어체험 활동을 통해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건육성과 미래지향적인 학생상 정립을 위해 다양한 연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나익학습방

이수증발급

10 / 전체목록 : 13건

선택	번호	교육구분	과정구분	수강과정(년도/기수)	학습기간
<input type="radio"/>	13	전문교육(교육공무원)	원격	2013년도 제6차 맞춤형 원격직무연수(학교 컨설팅장학 운영 지원)(2013 - 1)	2013.11.05 ~ 2013.11.19
<input type="radio"/>	12	전문교육(교육공무원)	원격	교육전문직 역량강화(스마트교육을 활용한 교실혁명) 원격연수(2013 - 1)	2013.09.09 ~ 2013.09.27

### 4. 발급하실 과정 및 선택 체크 후 인쇄화면 클릭

이수증발급

10 / 전체목록 : 13건

선택	번호	교육구분	과정구분	수강과정(년도/기수)	학습기간
<input type="radio"/>	13	전문교육(교육공무원)	원격	2013년도 제6차 맞춤형 원격직무연수(학교 컨설팅장학 운영 지원)(2013 - 1)	2013.11.05 ~ 2013.11.19
<input type="radio"/>	12	전문교육(교육공무원)	원격	교육전문직 역량강화(스마트교육을 활용한 교실혁명) 원격연수(2013 - 1)	2013.09.09 ~ 2013.09.27

### 5. 프린트 모양 버튼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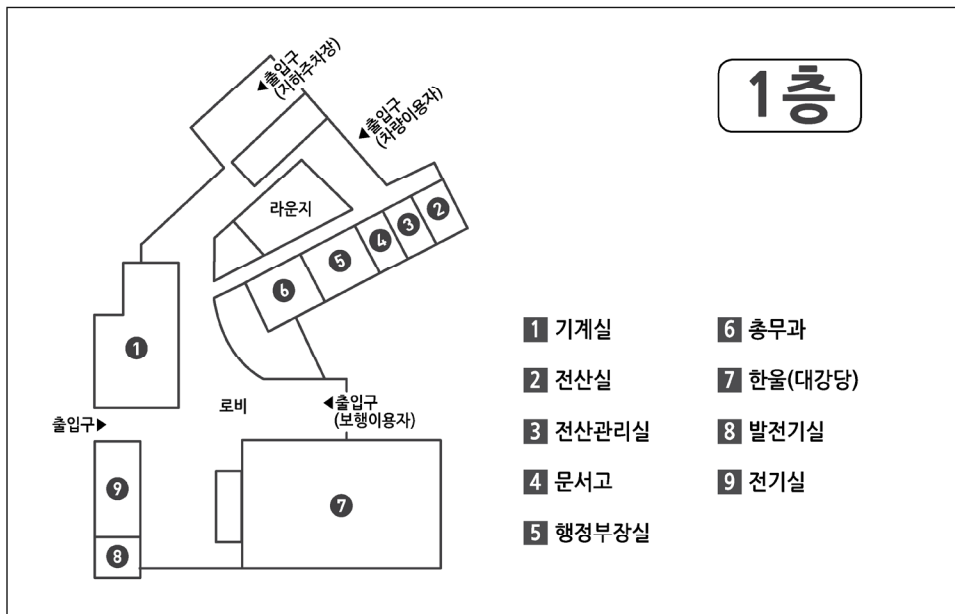
제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2011-3674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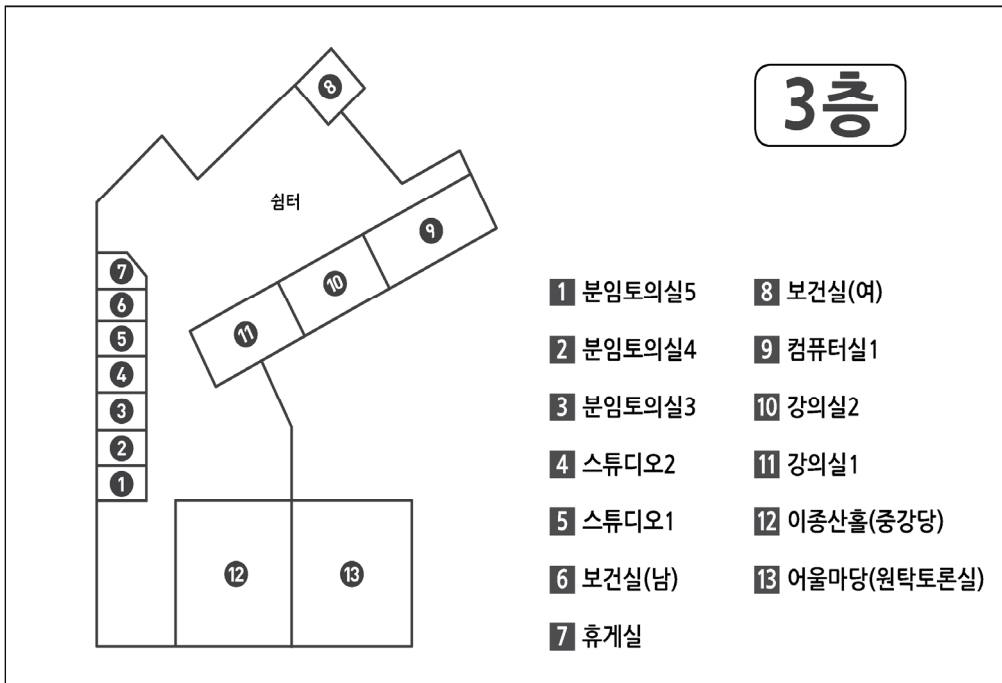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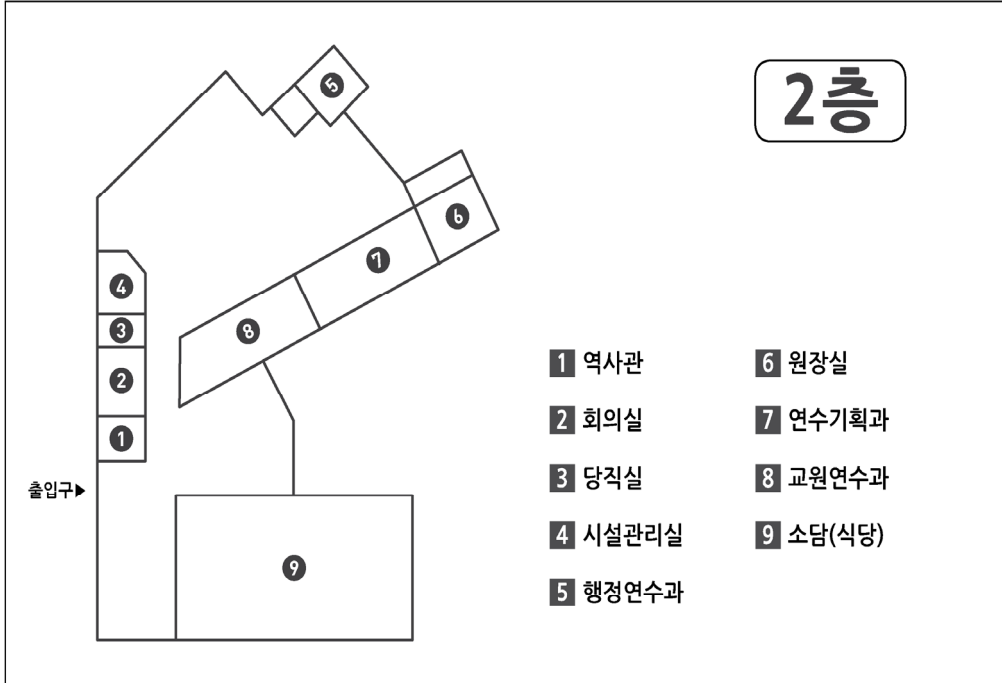
**이 수 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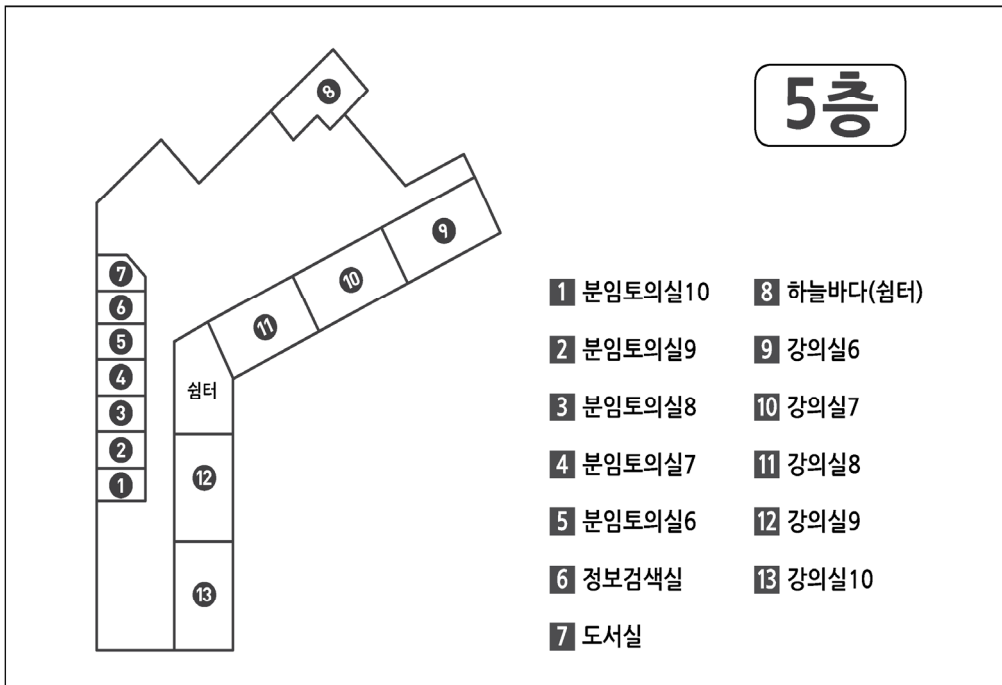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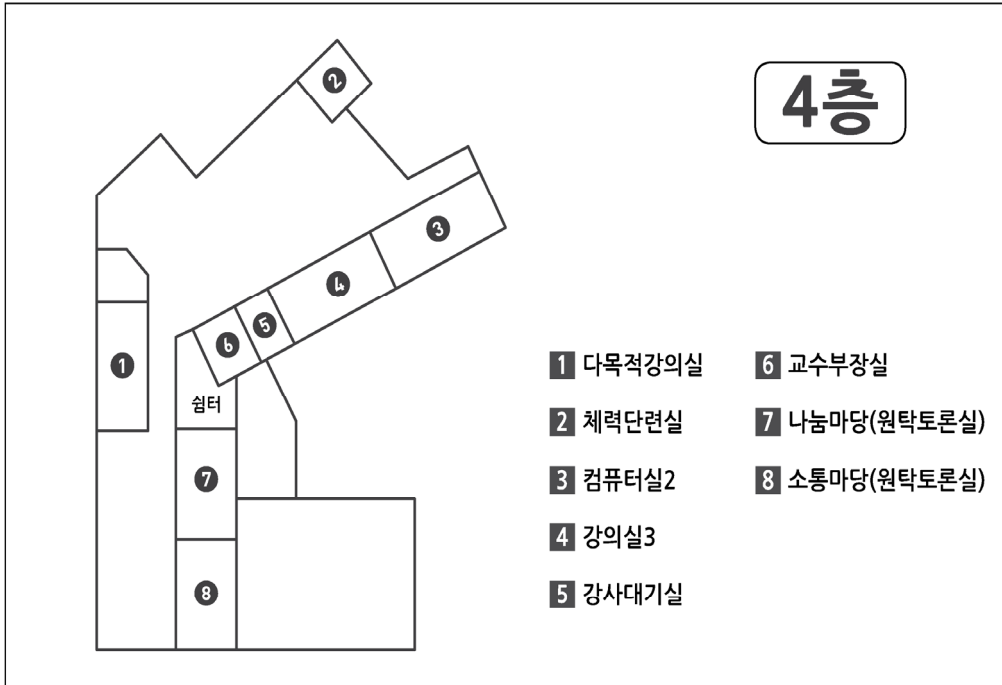
<b>기타 문의사항</b>	연수과정 담당자
	교육연구사 김영화 ☎ (052-250-0524)

# 울산교육연수원 안내도

## 【울산교육연수원】 강동 신청사 안내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연수 운영 지침

## 사회적 거리두기 개요

- (사회적 거리두기란?) 코로나19의 장기유행에 대비하여 국민의 일상 생활과 경제활동을 보장하면서,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한 감염 예방 및 차단 활동이 함께 조화되도록 전개하는 생활 습관과 사회구조 개선
  - \* 코로나19 확산 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는 등 유연한 대응
- (기본원리)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생활공간 침입 차단, ▲생존 환경 제거, ▲몸 밖 배출 최소화, ▲전파경로 차단을 위한 수칙을 알고 실천해 공동체를 보호

### □ 출근 전

-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인후통, 기침, 호흡곤란, 권태감, 두통, 근육통 등)이 있는 경우 담당연구사에게 연락

### □ 도착 시

- 건물 앞쪽으로부터 출입
- 건물 현관에서 발열 체크 및 확인/확인결과 작성
- 손 소독제 사용

### □ 연수 진행 시

- 자연환기가 가능하게 연수가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창문을 상시 열어두기
- 개인 텀블러 등 개인 소품 사용하기

- (강사) 침방울이 튀는 행위(단체구호, 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를 유도하지 않고 신체 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
- (담당연구사) 연수 시작 전 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 급식 시

- 손 씻기, 손 소독제 사용

□ 연수 종료 후

- 연수생은 연수종료 후 14일 동안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시 담당연구사에게 연락

□ 공통

- 건물 앞쪽으로만 출입
-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옷소매 등으로 입과 코 가리기
-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기
- 현관 발열 체크는 출근 시, 점심 식사 후 입장 시 2회 실시
- (연수 중 이상증후 발생 시) 남, 여 보건실로 이동/격리 후 담당연구사에게 연락한 다음 매뉴얼에 따라 조치

